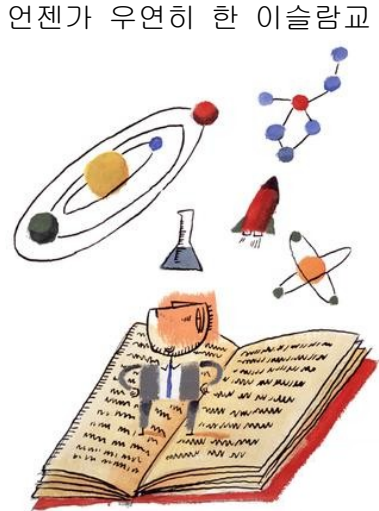


< 목차 >

1. 특집- 과학과 신앙 : 떨기나무가 타오르면 / 편집부
2. 특집- 과학과 신앙 : 진화론을 위한 변명/ 편집부
3. 유카탄 선교 보고 : 김영석 장로님
4. 성시 감상 : 밤기도
5. 추억의 영화 : 닥터 지바고
6. 건강칼럼 : 고혈압 - 이민선 장로님
7. 일반 치과 상식 - 이호영 교우님
8. 그리운 얼굴 : 유일한 친구의 기도 - 고 정은순 권사님
9. 칭찬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봉사 - 김영미 집사님
10. 독자 투고 : 인도를 다녀와서 - 김성덕 자매 (디모데)
11. 독자 투고 : 말은 아름답게 분명히 하라 - 최인영 권사님
12. 독자 투고 : 묵상 노트에서 - 어느 교우님 (바울)
13. 독자 투고 : 향기로운 산제사 - 이현숙 집사님
14. 독자 투고 :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 박은영 교우님
15. 독자 투고 : 인생의 세번째 단계 - 정은옥 집사님
16. 독자 투고 : 다움 - 이종한 집사님
17. 독자 투고 : 나는 영원한 찬양대원 - 이만희 권사님
18. 독자 투고 : 다시 읽은 민수기 - 김현준 교우님
19. 독자 투고 : 안 장로님을 생각하며 - 전성균 장로님
20. 독자 투고 : 파인릿쥐 散見 - 이종한
21. 유우머 1 번지

1. 특집- 과학과 신앙: 떨기나무가 타오르면/ 편집부

너무나도 과학적인 꾸란



언젠가 우연히 한 이슬람교 웹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거기에서 무척 흥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꾸란(코란)이 너무나도 과학적인 책이라는 내용의 글이었다. 그 글에 따르면 꾸란에 수정된 인간의 배아가 태아로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는 지금의 발생학자가 보더라도 너무나 생생하고 사실에 부합되는 묘사라서 감탄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복강경도 없던 옛날에 그토록 생생하게 자궁 속의 태아의 발생을 묘사해 놓은 것만 보아도 꾸란은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놀라운 책이라는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주장을 기독교계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의 주요 주장은 성경이 너무나도 과학적인 책이란 것이다. 이 단체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이를 전파하여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굳건히 하는 것을 주요 활동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의 경전인 꾸란과 성경이 각각 너무도 과학적인 책이란 주장을 접하면서 “과학적”이란 말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절대적 신뢰 앞에서 종교계에서까지 “과학적”이란 단어를 동원하여 경전의 사실성을 옹호하고 호교적 활동에 열을 올리는 것 같아서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는 과학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한적인 무신론적 기도

언젠가 실험실에서 실험하기 전에 기도하는 연구자를 본 적이 있다. 당사자에게 무엇을 기도하였는지 묻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었다. 아마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실험의 조건을 이 실험으로 찾아내어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기원했을 수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멋진 실험을 디자인하여 결정적인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했을 수도 있고, 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중요한 연구를 앞두고 실수없이 성공적으로 실험이 진행되어 연구가 한 번에 잘 마무리 되기를 기원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연구자라도 신에게 자신의 연구에 개입하여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는 연구 결과가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만 얻어질 수 있다거나,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손으로 재현이 불가능하다든지, 이미 알려진 다른 과학적 지식들로 설명할 수 없거나 그것들과 서로 충돌하는 것들은 과학적 데이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도하는 연구자라 할지라도 기도는 시험관 외적인 내용에 국한하고 시험관 내에서는 철저하게 신의 개입 없이, 초자연적이지도 않고 기적적이지도 않은, 자연 법칙에 의해 설명과 이해가 가능한, 철저하게 무신론적이며 형이하학적인 자연 현상으로서의 반응(reaction)만이 일어나길 기도할 뿐이다. 연구자의 이러한 기도를 “제한적 무신론적 기도”라고 부를 수 있겠다.

과학적인 지식

과학적 지식이란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하여 얻어진 것들로 기존의 과학적 지식들과 충돌하지 않고 상호 보완 설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과학적 지식들이란 반복해서 재현 가능한 것들이어야 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이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언제든지 어떠한 식으로든 제기된 반론에 대하여 다시 진위를 시험하여 이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지식이어야 한다. 어떠한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언제든지 다시 시험 가능한 것만을 과학적 지식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의 결과 얻어지는 과학적 지식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식이란 객관성을 위하여 수치 또는 수식(equation)로 환산할 수 있는 정보들이 대부분이다. 물질의 무게, 부피, 길이, 높이 넓이, 갯수, 점도, 탄성 등 물질의 성질, 상태와 물질의 운동, 물질들의 상호 반응 등에 대한 정보 등을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과학적 지식들은 일반적으로 이처럼 계량 가능한 형이하학적인 것에 대한 탐구에서 얻은 것에 국한되며 이들 중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들은 계속되는 연구를 통하여 객관성을 얻을 때까지 과학적 지식에 편입되는 것이 보류된다.

이처럼 과학적 지식이란 무척 다양하고 투명한 획득 과정 및 검증 과정을 통하여 확립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식이므로 신뢰도가 무척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과학적 지식은 단지 계량 가능한 형이하학적인 범주의 지식일 뿐이라는 것이 간과되면 안될 것이다.

갈라진 요단강물

성경에 보면 요단강물이 갈라진 것이 세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진격할 때 요단강물을 가르며 건넜다(수 3:14-17). 다른 한번은 엘리야가 겔옷을 말아서 요단강물을 내리쳐서 갈랐고(왕하 2:8) 또 다른 한번은 엘리야의 승천 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겔옷으로 내리쳐서 요단강물을 한 번 더 갈랐다고(왕하 2:14). 과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본다면 요단강물이 갈라진 것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이는 누구나 반복적으로 재현 가능한 일도 아니고 현재까지 알려진 자연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설사 이런 현상이 현재 눈 앞에서 목격 되더라도 이는 과학적 사실에 편입될 수 없는 것이다. 명백하게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단지 형이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일 뿐이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적들도 모두 과학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다. 전능자이시고 초월자이신, 그리고 개념적으로는 형이상학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이적들을 형이하학적인 것을 탐구하는 과학의 눈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마치 눈을 가리고 청각을 사용하여 사물을 보려는 시도나 귀를 막고 눈으로 음악을 즐겨보려는 시도와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과학은 우리의 기본적인 물질적이고 형이하학적 욕구인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충족시켜주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여왔고 따라서 물질 문명의 시대인 오늘날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과학적”이란 말 또는 “과학자들의 말”은 절대적 사실이란 말과 동의어가 되다시피 하였다. 교육도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다. 심지어는 인문학의 많은 분야도 교육 과학이니 스포츠 과학이니 생활 과학이니 사회 과학 등으로 그 이름을 바꾸고 연구 방법도 자연과학의 과학적 연구 방법을 채용하여 응용하기 시작한지가 벌써 오래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교육을 받다보니 현대인은 점차 물질적이고 형이하학적인 시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다. 또한 과학적이란 수사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과학적 사실”이란 것을 맹신하기에 이르렀다. 구란(코란)이 과학적이란 주장이나 성경에 적힌 사실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진실이란 주장들은 모두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과학적인 책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연구가 가능한 대상에 관한 기록이 절대로 아니다. 성경은 인간의 먹고 마시고 입는 등의 형이하학적인 욕구가 아닌 형이상학적인 문제들, 이를테면 인간의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의문, 영원한 것에 대한 동경과 갈망, 근원자인 절대자에 대한 탐구와 절대자와의 소통과 교감 등에 대한 기록인 것이다. 따라서 성경을 과학적 잣대로 재단하여 판단하려는 시도나 과학적 방법으로 옹호하려는 시도는 동기의 선악에 관계없이 그다지 현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떨기나무가 타오르면

형이하학적인 관심사나 탐구 방법에 익숙하도록 교육된 현대인들은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의 갈망이나 욕구에 대해서는 점점 둔감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또한 성경을 펼쳐서도 교육받고 훈련된대로 과학적인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끝없이 의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을 갖기 힘들고 때때로 혼란스러운 것이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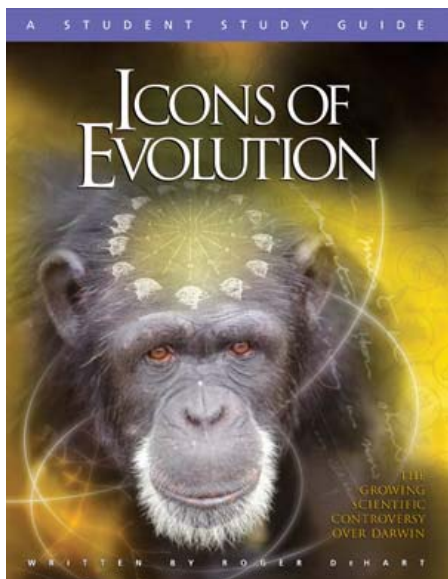
떨기나무가 타오르고 그 가운데 음성이 들리면(출 3:1-5), 스피커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을까 궁금해하거나 연료는 어떤 것을 사용하여 어떻게 불을 피웠을까 생각해 보기 보다는 단지 신발을 벗고 부복하여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일이다. 그리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된 존재로서 다함없는 영원한 안식과 열락을 즐길 일이다.



2. 특집- 과학과 신앙: 진화론을 위한 변명/ 편집부

진화론과 신앙적 고민

진화론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서



고민하고 있다는 젊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믿음과 불일치한다고 여겨지는 과학이나 진화론을 외면하고 직시하지 않는다. 이 둘 사이의 갈등에 휩싸이기 보다는 친하지 않은 어느 한 편을 외면하는 편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또한 사춘기 자녀를 가진 그리스도인 부모도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과 교회에서 배우는 창조론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기 시작할 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없었던 고민을 토로하기도 한다.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윈을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진화론을 주창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과학계에서 계속적으로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접하고는 과학을 통채로 불신하는 기독교인들도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기독교인들의 진화론에 대한 오해와 과학계에 대한 편견에 대하여 과학계가 진화론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현재 종교계의 진화론에 대한 공세에 대하여 과학계가 갖는 입장을 살펴봄으로서, 기독교인들이 과학과 진화론에 대하여 올바른 입장을 정리하여 과학과 진화론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주기 위한 것이다.

진화론

진화론은 1859년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간한 것을 기점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생명의 기원과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생명계의 구축에 대해서 무신론적으로 설명하는데 필수적인 핵심 이론이 되었다. 진화론의 핵심적인 주장을 요약해 보자면 오늘날 지구 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초월적인 신의 개입없이 무기물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어 끊임없는 변화를 계속하고 이에 따른 다양성의 증가를 거듭하여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생물들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진화론은 현재 생명의 탄생과 생물계의 형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과학계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유일한 과학적인 이론이다. 20세기에 와서 진화론이 과학 이론으로서 널리 인정되고 받아들여짐에 따라서 신에 의한 창조론은 배척되고 있으며 무신론적인 사상들이 만연하게 되었다. 현재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인구 비율이 더 높은 나라는 단지 기독교 인구 비율이 비교적 높은 미국과 한국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화론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진화론을 배척하기보다는 단지 막연히 진화론을 회피하거나 외면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진화론의 성격이나 그 성립 배경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일인 것 같다.

진화론이 생물학계에서 인정하는 생물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는 유일한 학설이기는 하지만 사실 실상을 보면 진화론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연구되고 그 결론으로 도출된 학설은 아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 출간 이후에 오랜 기간을 거쳐 생물학계에서 채택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사실에 기반을 둔 과학 학설로 오해받고 있지만 사실 진화론은 과학 학설이라기 보다는 종교계에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창조론과의 이념적 투쟁을 위하여, 그리고 생물학 연구를 위해 신을 배제한 무신론적 연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계(또는 생물학계)가 채택한 이데올로기적인 학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세간에서는 과학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의 결과, 생물의 무신론적 진화가 마치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고 이를 무신론의 기반으로 삼기도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과학 혁명과 계속되는 종교와 과학의 대립

지금도, 특히 미국에서는, 기독교와 과학은 여러 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그 선봉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이 마주치고 있다. 생명의 탄생에 대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진화론의 한계를 가르치고 대안으로 지적설계자에 대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한다는 주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주장이 맞서서 법적 판결이 필요하게까지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과학과 종교의 대립은 무척 오래 지속되어 온 것이고 과학계의 전폭적이고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진화론에 대한 지지와 옹호도 이러한 오랜 과학과 종교의 대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7 세기에 과학 혁명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유럽은 온통 종교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래로 모든 지식은 성경에 그 근간을 두고 있어야 했으며 우주와 자연에 대한 인류의 지식도 당시의 신학자(스콜라 철학자)들이 당시의 자연에 대한 세간의 믿음을 성경을 토대로 재해석하여 체계화하여 재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15 세기부터 자연에 대한 탐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식인들의 발견들은 종교계의 거듭되는 견제와 핍박을 받게 된다. 한 예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발명하여 달의 분화구나 산맥을 발견한 일이나 태양에 흑점이 있는 것을 관찰하여 보고한 일로 인하여 종교계에서는 천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한 것들이기 때문에 흠결이 없는 완벽한 것이라는 당시 믿음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교 권력의 핍박을 받았다. 또한 당시 세간의 믿음이었던 별들과 달과 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에 반하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했다고 해서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을 받고

종신토록 가택 연금을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 티고 브라헤, 갈릴레오, 케플러 등의 연구에 의해 결국 천동설은 지동설에 의해 폐기되게 되었으며 종교계에 의해 지배되던 사회에 크나 큰 충격을 던졌다. 그 후로 종교계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지식 체계와 그 해석에 대한 지식인 사회의 의구심은 날로 커져갔고 계속되는 새로운 자연 탐구는 보다 전문화되어 갔고 그에 따른 다양한 지식의 비약적인 축적은 종교계에서 더이상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 또한 계속되는 종교 권력의 축소로 인하여 과학계는 점차 종교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유럽에서는 기독교의 영향력의 대폭적인 감소의 또다른 원인이 되었다. 지식인 사회는 더이상 성경의 기록에 근거하여 자연을 이해하는 것을 거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오직 성경에 기초하여 자연을 이해하려 하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그 해석을 제한하려한 오래 지속되어 온 낡고 오래된 생각과 투쟁하며, 근대 사회가 새로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확립하고 획기적으로 자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것을 과학 혁명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서 천문학, 물리학, 지질학, 화학 등 여러 학문 분야들이 새롭게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축적된 지식을 이용하여 인류는 과학 물질 문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었다.

생물학 그리고 생기론

하지만 과학이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혁명적으로 변화하며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반하여 한가지 예외적인 분야가 있었다. 바로 생물학이었다. 천문학, 물리학, 지질학, 화학 등은 천동설이 지동설에 의해 교체된 이래로 많은 법칙의 발견에 의해서 또는 신의 영향력을 배제한 무신론적인 공간에서 물질의 구성과 상호 반응, 운동 등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었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이상 신의 섭리에 의해서가 아닌 자연물을 지배하는 고유의 자연 법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고 인간이 자연 현상을 예측하거나 이를 조절하며 원하는 반응을 유도할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생물학은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여전히 종교의 영향 하에 놓여있을 수 밖에 없었다.

19 세기까지만 해도 생명체는 초월적인 신의 특별한 창조물이므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믿음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믿음은 성경에 기초한 것이었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고 적혀있다(창 2:7). 또한 에스겔서 37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골자기의 뼈들에게 불어 살게 하라”고 하시는 장면도 나온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생기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생기가 떠난 생명체는 죽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따라서 생명체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요소는 생기라고 믿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믿음을 생기론(vitalism)이라고 부른다.

기계론 그리고 진화론

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들이 성경에 기초한 지식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시점에서 생기론에 발목 잡힌 생물학은 근본주의적인 엄격한 시각을 가지고 있던 과학자들에게는 과학으로 간주하기 힘든 면이 많았다. 신이란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주입하였다는 “생기”란 초자연적인 힘이 좌지우지한다는 생물체에 대한 연구가 그들의 눈에는 과학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과학인양 하면서도 신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신의 피조물로 남아있는 생물체를 연구하는 것이 생물학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였다.

생기론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생명체가 어떤 초월적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체나 화합물들이나 다른 물질들처럼 동일하게 기계처럼 이해될 수 있다는 기계론적인 생명관이 점차 생기론을 공박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념적인 투쟁이었으며 결정적 근거없이 단지 지지층의 확대에 의해 승부를 가릴 수 있었다. 당연히 다른 모든 과학의 분야를 주도하던 무신론적 기계론이 생물학계에서도 시류에 편승하여 이념적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생물학도 이념적으로는 신으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과학의 분야들처럼 과학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하지만 신이 생명체를 창조하였다는 오랜 믿음은 여전히 널리 퍼져있었고 이를 계속 믿는 과학자들도 많았다. 신이 아직도 과학의 영역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윈 자신도 진화론에 대해 저술을 하면서도 다양한 생명계의 구축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생각이 성서에 기술된 것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 오래도록 고민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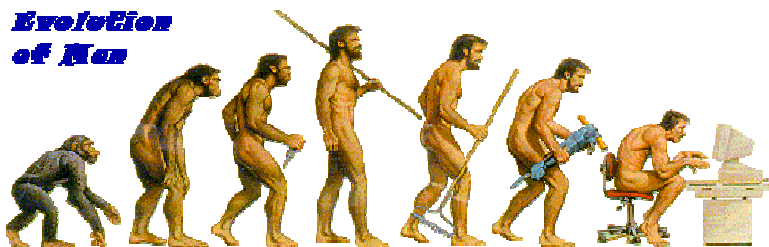
생기론에 대하여 생물기계론의 이념적인 승리에 의해 표면적으로나마 과학의 일원이 된 생물학은 이제 실질적인 이론적 토대가 필요하였다. 종교에서 파생되어 당시까지 생물학을 지배해 오던 생기론과 초월적 신에 의해 생명이 창조되었다는 창조론과의 고리를 완전히 끊고 이를 대체할만한 이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생명체란 신이 만든 그 자체로 현재에 이른 것이 아니라 끝없이 변화를 거듭하여, 현재 관찰되는 다양한 생물계가 형성된 것이라는 비교적 오래된 믿음이 다윈에 의해 진화론으로 정리되어 주창되기에 이르렀다(1859). 진보적인 학생들과 지식인층에서 전폭적으로 이를 지지하였고, 약간의 박해를 받기도 했지만, 점차 지지층을 넓혀갈 수 있었다.

진화론의 정립과 발전 그리고 문제점

하지만 이는 과학 혁명의 시대인 근대라는 시대에 편승한 이데올로기적인 투쟁의 결과이지 과학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근거의 축적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오랜 동안, 지금은 조작극으로 판명된 Ernst Haeckel (1834-1919)의 개체 발생은 계통발생을

*Evolution
of Man*



And Woman



반복한다는, 발생반복설이 유일한 진화론의 과학적 근거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후로도 40 년간, 진화론은 이를 직접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없이 계속 그 간절한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단지 이론 또는 과학적 전제로서만 생존해 있었다. 이때를 진화론의 역사에서는 “진화론의 암흑기”라고 부른다. 다윈주의(Darwinism)으로 불리던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본격적으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그 후로도 40 여년이 더 필요하였다. 1930 년대 말까지 다윈이 주장한 생물이 자연발생하여 변화를 거듭한 끝에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생물계가 형성되었다는 진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세부 이론이 정립되지 못했던 것이다.

1930 년대 말에 일단의 진화론자 그룹이 협의를 계속하며 그동안 1900 년대부터 몇 십 년간 생물학계에서 새로이 발전된 유전학적 개념들과 돌연변이설을 다윈이 주장한 이론에 조합하여 신다윈주의(현대종합이론)를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간략히 설명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돌연변이의 점진적인 축적에 의해서 생물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화하며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생물계를 구축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이고 획기적인 과학적 결과 없이 소수의 생물학자들의 협의에 의해 끼워맞추기 식으로 도출되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신다윈주의는 불과 40 년을 넘기지 못하고 1980 년 10 월 중순, 시카고의 자연사 박물관에서 160 명의 세계의 저명한 진화론자들이 모여서 개최된 학술회에서 격론 끝에 폐기되고 말았다. 신다윈주의는 그동안의 과학적 연구 결과와 너무나도 어긋나는 것이 많아서 더이상 과학이론으로서 생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종의 기원 발간 후 80 년간의 거의 공백기를 벗어나 가파스로 정리된 최초의 진화론의 핵심 이론이 불과 40 년만에 진화론자들에 의해 부정되고만 것이다. 현재를 이 공백을 메울 생물 진화 이론으로, 수십년 전에 몇몇 학자에 의해 주장되었으나 주목받지 못하고 있던 개념을 다시 등장시킨 것이 현재 약 20 여년간 진화론의 핵심 이론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속평형설이다. 하지만 이는 1980 년에 폐기된 신다윈주의(현대종합이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급히 도입된 것으로 단지 관찰된 화석이 종간의 너무도 큰 간극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일 뿐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진화론을 위한 변명

이상에서 본 것처럼 진화론의 역사 160 년에, 현재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하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과학적 근거도 개연성 있는 번듯한 세부적인 이론들도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이다. 또한 진화론은 그 이론이 정립을 위해 생물학계 전체에 걸친 폭넓은 지지와 합의하에 도출된 것도 아닌 일단의 소수 그룹이 선구자적으로 전향적인 이론을 만들어 이론적 공백을 채웠던 것이고 잠정적으로 과학계가 수용했던 것이다. 현재 채용되어 사용되는 이론도 허점이 많아서 단지 잠정적으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존속하는 것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계나 언론에서 진화론이 마치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학교 과학 시간에 진화론의 한계를 가르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적 설계론에 대해 가르치자는 주장에 대해 과학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거의 맹목적으로 진화론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야 진화론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고 진화론으로부터 파급된 무신론적인 세대에서 신앙인으로서 균형 잡힌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17세기부터 시작된 과학 혁명기 이전에는 인류의 지식은 자연에 대한 체계적이지 못한 피상적 경험을 토대로한 세간의 때때로 미신적인 믿음, 비교적 합리적인 자연 관찰의 결과 얻은 신빙성 있는 지식, 그리고 이들을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재해석한 지식 등이 혼재해 있었다. 자연 과학의 방법론이 새로 정립되면서 많은 기존의 지식들이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대표적인 예가 천동설) 어떤 것들은 진위를 가릴 수 없는 것들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지적 탐구를 하는 과학자로서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지식이 혼재된 가운데 선명하게 의심없이 진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야의 지식들만 우선적으로 믿을만한 지식으로 분류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진위를 체계적으로 가릴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한 형이하학적인 물질계에 대한 연구에만 치중하게 되었다. 이는 자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비약적으로 넓히게 해주고 많은 결실을 볼 수 있었다.

자연히 이런 분위기 하에서 자연히 자연 법칙의 지배 밖에 있으며 초자연적인 신의 개입으로 일어나는 초자연적 이적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한 성경은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의 범주에는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었다. 지적 탐구를 위하여 자연 현상을 관찰하여 자연 법칙을 탐구하는데 있어서 초자연적인 신의 개입은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연 법칙을 교란시켜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뿐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과학이 연구의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19세기까지 성경에 기초한 생기론 그리고 창조론에 발목 잡혀있던 생물학에서의 진화론의 도입은 신을 생물학 연구에서 배제하고 무신론적인 연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진화론의 화두는 신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자. 그런 전제하에 그렇다면 오늘날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진화론은 과학적 연구 결과 얻어진 결론이 아니라 신을 배제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무신론적으로 생명체를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 도입한 전제인 것이다.

따라서 과학계에서 진화론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물을 다시 신의 피조물로 간주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며 이는 초자연적인 신을 자연 법칙의 이해를 위한 지적 활동에 초대하는 일이 되며 이는 과학적 연구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초자연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존재와 그분의 개입으로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는 눈 감고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한 과학계의 입장은 존중되어야 한다. 과학계의 맹목적이고 집요한 진화론에 대한 계속적인 옹호는 어떻게 보아도 너무도 약점이 많은 단지 과학적 전제인 진화론을 방어하여 생물학을 과학의 영역에 계속 잔류시키고자하는 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이것이 또한 과학 수업 시간에 진화론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가르치려는 몰지각한(과학계의 입장에서 볼 때) 시도를 과학계가 찬성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과학의 역사를 반추해 볼 때, 중세는 말할 것도 없이 근대까지의 종교 권력은 과학의 발전을 심하게 견제하고 간섭하고 핍박한 전력이 있다. 과학계는 진화론에 대한 오해에서 세상에 만연한 무신론적 세계관에 대항해 보려고 종교계에서 진화론을 공격하는 것을 이러한 과거의 종교계의 만행의 재현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더욱 완강하게 저항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과학과 종교의 뿌리 깊은 대립은 아직도 해소되거나 양측간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진화론을 사실로 오인하여 무신론의 근거로 삼거나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데까지 동원하는 것은 진화론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오는 지나친 일인 것 같다. 또한 진화론을 사실로 오인하여 이로 인하여 신앙에 대해 고민한다는 사람들도 잘못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중세와 근대의 신학자들이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과학을 핍박하다가 패퇴하여 오히려 무신론적인 철학이 만연하게 만든 오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러한 세대에 잘못된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신앙인들도 과학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에 기초한 건전한 세계관을 갖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로 보인다.

*편집자 주: 진화론이나 과학에 관한 의문이나 토론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신 분은 kpcmokhap@gmail.com 으로 메일을 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관련 분야에서 공부하시거나 하신 분들을 섭외하여 답해드리겠습니다.

3. 제 8 차 유카탄 단기 선교/ 김영석 장로님

이번에 저는 유카탄 단기 선교에 처음 참가했습니다. 선교 보고도 여러번 들었고 사진도 보고 또 직접 소감을 듣고 관심도 가지고 있었지만 선교 여행중 일상적인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기에, 이번 기회에 자세히 적어 보기로 작정하고 줄곧 메모를 하였습니다. 유카탄 선교의 선입관이라 할 수 있는 더위, 샤워, 화장실, 잠자리, 음식, 배탈, 교통 불편 등등의 어려움이 선교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록으로 유카탄 선교 여행이 이제는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했던 분들의 노고와 경험이 쌓여 지금의 선교 여행 형태로 발전했음을 증언하면서 여러 교인들의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선교 일정이 11 월 중에 광고되면서 희망자 모집함. 겨울이라 덥지 않겠다는 생각에 지원함.
- 3 번 수요일 저녁 team meeting 에 참석했고 각자 부담하는 비용 - 비행기 표 등등 - 으로 \$550 을 지불.
- 11 명 - 이영자, 황청수, 장재희, 강명섭, 정인숙, 이우범, 이혜숙, 김석년, 안남희, 김정희, 김영석 - 이 가는데 처음 가는 이는 나뿐이라 함. Spanish 공부할 재료를 받았으나 기초가 전혀 없으므로 공부 시작이 안되었음.

1/10/2007 수, 짐 꾸리기

-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난 후 팀이 모여서 짐을 꾸림 --의료 선교에 쓸 약과 안경, 티셔츠, cot, 음식, 등등. 이민 가방으로 14 개 정도임. 40 LB 이하로 무게를 맞춤. 밤에 추울지 모르니 각자 슬리핑백을 가져와야 한다고 함.
- 교회 버스에 짐을 실음.
- Spanish 로 된 교회 로고가 있는 티셔츠를 받음 - 청색, 흰색, 노랑색. 로고 디자인은 황청수 장로님 작품이라 함. 공항에서 유니폼으로 티셔츠를 입으면 세관 통과에 유리하고, 사역하는 동안은 티셔츠를 입어야 한다고함
- Passport 를 꼭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지.
- 8 차 유카탄 단기선교 폴더를 받음. 표지 다음 장에 있는 언더우드 목사(1884 년 한국의 선교사로 옴)의 기도문에 가슴이 뭉클 - 오 주여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여행 목적은 의료 선교 및 장기 선교지 답사.
- 교회 옆 Perkins 에서 '단합대회'를 거의 밤 10 시에. 단장(전도부장)인 황청수 장로님이 냄. 이영자 장로님은 팀장 - 머리를 짧게 깎으셨는데 팀장으로 돋보일려고 그랬다는 이혜숙 장로님(회계)의 쇼크.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것에 긴장이 좀 풀림.

1/12/2007 금, 유카탄에 도착

- 비행기(Continental Airline) 출발 시각이 오후 2 시 50 분인데 ride 문제로 오전 9 시에 교회 도착. 정인숙 집사님이 주보 만들고 계셨음.
- 신 전도사님이 버스 운전. 강명섭 장로님 내외와 김석년 장로님 맥을 거쳐서 공항으로.
- 공항에 여러 분들이 마중 나오심 - 강목사님, 박목사님 내외, 양장로님, 박인숙집사님... 강목사님의 기도로 official mission trip count down.
- 각자에게 오늘 먹을 음식(점심과 저녁)이 배분됨 - 김밥, 약밥, nut 과 grain 볶은 것, 떡. 각자 carry-on baggage 외에 2 개의 짐을 보내기로 함. 짐 부치는데 거의 단체여행자로 배려를 받음.
- Houston 에서 김밥을 먹고, Merida 가는 비행기로 갈아 탄.
- Merida 에 오후 9 시경에 도착. 미네소타와 같은 CST time zone. 무사히 세관 통과 (다른 선교팀들이 세관에서 약이나 약간 expire 된 치약등을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했으나 기도하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 우리 선교팀의 전통. 약이 많이 든 백이 X-ray 에 걸렸으나 세관들의 혼동으로 중요한 것이 없는 옆의 다른 bag 을 검사함). 수건을 안 갖고 와서 수건 살 상점을 찾았으나 안 보임. 이종하 선교사님 내외와 Becky(통역인)의 영접. 대절한 '관광'버스에 곧바로 짐을 싣고 Santo Domingo 로 향함. 딱딱한 의자. 기대보다 편안함. 도로가 좁았으나 잘 포장된 highway. 산이 없는 평평한 지역. 여러 작은 도시 중심가를 지남. 자전거에 cart 를 붙인 것이 이곳 택시라 함. Speed bump 가 많았음. Stop(Alto) 사인은 잘 안지키나 Speed bump 에는 거의 정지하는 듯 지나감. 집들이 도로 가까이 도열해 있는 것이 특이했음. Santo Domingo 장로 교회(한미교회가 설립한 5 년된 교회, 이종하 선교사 내외분 사역지 중 하나)에 예정보다 빨리 10 시 30 분 도착. 여러 교인들의 마중. 아이들이 많이 보였음. 어른들은 10 명 내외.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들이 대부분 떠남. 같이 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없어서 그렇다는 설명.
- 여자분들의 숙소는 교회에 딸린 부엌 옆 두 방으로 하고, 남자분들의 숙소는 예배실로 하기로 함. Cot 을 우선 조립함. 이영자 장로님이 어느 분의 수건을 빌려 줌.

- 손을 깨끗히 씻고 선교에 쓸 약을 정리하여 각 사람에게 줄 비닐 봉지에 넣음. 이영자 장로님의 지휘. 학생들이 slave driver 라 한다고 함. 군대식이란 느낌. 최대한 신참의 어리둥절함을 면하려고 눈치보는 데 신경 집중.
- 코고는 소리에 잠 못잘 이를 위한 귀막이를 배분. 모두들 이종하 선교사님께 패스포트를 맡김 -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 있으면 집에 갈 수 있다는 중론.
- 화장실과 샤워가 같이 있음. 수세식 변기. 이곳 가정집엔 화장실이 따로 없다고 함. 교회의 뒷게있는 우물에서 물을 지붕의 물탱크에 끌어 올림. 교회 수도시설의 물 근원지는 이 물탱크.
- 예상보다 이른 자유시간. 12 시 조금 지나서 취침.

1/13/2007 토, 사역지 - Churchkmil

- 아침 7 시의 QT 가 공식 일정의 시작이나 남자분들은 2 시간 전부터 복적대기 시작한 것 같음. 나만 빼고 다들 아침형 인간. 누구 누구가 코를 골아 잠 못잔다는 투정을 들으며 기상. 나는 모르고 잘 잤으니 나도 장본인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함 - 남자 50 세면 거의 코를 곤다는 통계가 사실인 모양. 50 세 이하는 장재희 집사님 뿐.
- 나는 아침 샤워를 생각하고 저녁에 하기로 함. 저녁에는 낮 동안 더워진 물로 샤워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음.
- 강명섭 장로님 - 가나다 순 - 의 주재로 QT 를 함. '오늘의 양식'이 이번 선교를 위하여 준비되었음. 오늘의 주제는 '낙원의 메아리'. 말씀은 요한계시록 21:1-7. 찬송 인도는 역시 강장로님 - 이 선교 여행을 위하여 노란 표지의 찬송집을 만드셨음. Spanish 가사의 찬송을 불렀는데 다들 비교적 익숙한 듯. 이해숙 장로님이 그 중 expert.
- 아침식사: 참기름으로 만든 scramble egg + spam, bread w/ jam, peanut butter
- 각자에게 water bottle 배급.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된다는 주의. 커피 잔으로 Styrofoam cup 을 사용했는데 버리지 말고 각자 이름을 쓰게 함. 물론 bottle 에도 이름을 썼음. 선교 여행에선 버리는 것이 없다고.
- 85 ~ 90 F 화창한 날씨
- 숙소에서 사역지까지 약 15 분 drive. 촌장이 하는 운수 비지니스에서 뱅을 빌림.
- Churchknil Elementary School 에서 9 AM ~ 4 PM 까지 사역
- 접수 → 복음 제시 → 진료 → (돋보기 안경) → 선물 1 개씩
- 진료는 이우범 장로님, 이영자 장로님. 안남희 집사님. Becky 의 활락이 돋보임. 통역에 익숙하고 성심성의껏 일함. 또 다른 통역자는 마야말을 한다하여 고용되었는데 영어로 의사 소통이 안되어 유명무실.
- 복음 제시는 이선교사 사모님. Evange Cube 를 사용.
- 혈압 측정은 정인숙 집사님. 당뇨 측정은 김석년 장로님. 돋보기 안경은 황청수 장로님.
- 안내 및 교통정리는 이해숙 장로님. 짧은 Spanish 실력과 영어, 한국말, 몸짓으로 활발히 그들과 의사 소통하는 모습이 경이로움 - 강장로님 왈, 나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저렇게는 못해.
- 사진에 장재희 집사님. 강명섭 장로님은 여러 필요한 곳에 도움.
- 머리 깎기에 김정희 권사님. 기계로 깎는 것은 황청수 장로님.
- 접수는 Santo Domingo 장로교회 전도사님.

- 이 마을 진료봉사는 처음이라 함. 젊은 층 주부와 아이들이 대부분. 노인층이 별로 없어 돌보기 안경팀이 비교적 한산함. 남편들은 주로 일하러 감(벽돌공장?) 대개 26 세 주부이면 자녀 3~4 명을 데리고 있었고, 15 세 정도에 결혼하는 것 같았음. 교장선생님과 Santo Domingo 교회 전도사님이 도와줌.
- 돌보기 안경: 30 개 정도 나눠 줌.
- 첫 아이 머리 깎기가 주문대로 잘 안 깎기었는데 그 아이가 불평한 것이 소문 나 오전에는 조용했으나 오후에 한 여자 아이를 깎은 뒤 결과가 좋으므로 여자아이들이 몰림.
-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남자들은 머리에 무스를 바름. 12 명 머리 깎음.
- 진료는 성공적. 오전 96 명 오후 100 명.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20~30 명 몰림. 미리 광고한 효과인듯. 이종하 선교사님의 준비가 눈에 땀. 교통편, 숙소, 사역지등 많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심.
- 어른 비타민 70 봉지(30 개 씩), 어린이 비타민 70 봉지(20~30 개씩), 기침약, Tylenol 40 봉지(20 개씩 500mg), ibopupane 27 봉지(20 개씩), 기침약
- 점심식사: 밥, 말린오징어무침, 고추짬아치, 생선말림무침, 콩자반, 떡.
- 먹고 마시는 것에 특별한 주의: 식사전 손 씻고 wet towel 로 다시 닦음.
- 언어소통이 문제: 미리 준비해야 한다 - 거저 되는 것은 없다.
-
- 지역탐방: 100 가구?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이곳 기준으로 괜찮은 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듦. 남자들이 거의 안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일하러 간 듯. 가축으로 개, 닭, 말, 칠면조. Pentecostal 교회가 2 개 있다고 함. 오래된 카톨릭교회를 보았으나 사용중인지는 불확실. 여호와와 증인 전도자 2 team 을 만남. 주민들이 친절함. 눈인사나 말을 건네는 이들이 많음. 가게에서 파는 snack 을 먹는 아이들이 보이는 것으로 그리 빈곤하지는 않은 듯. 밭은 보이지 않음. 돌이 많은 땅. 정원에 나무 가꾸는 집들이 많음. 과수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
- 교장선생님의 당뇨를 측정했는데 상당히 높다고 함. 이장로님이 이것저것 음식을 조심하고 운동하라 권함. 대답은 yes 하는데 표정은 그러면 무엇을 먹나...
- 토요 저녁 예배는 Santo Domingo 장로교회. 6:30 PM ~ 8:30 PM. 음악예배. 두개의 밴드가 있었음. 그 중 통기타로 연주하는 4 명의 밴드는 소문나서 여러 곳에 초청된다고 함.
- 첫 번째 설교는 이 교회 전도사님이 Spanish 로 통역 없이 했고, 황청수 장로님이 두번째 설교를 영어로 하고 Becky 가 Spanish 로 통역함.
- 예배 후 늦은 저녁식사를 교인들과 같이 함. 메뉴는 짜장밥. 의자를 교회 마당에 원형으로 놓고 교인들이 앉아서 식사함. 우리 일행은 같은 마당에 앉았으나 교인들과 같이 앉지는 않음. 말이 안통하니 그들과 친숙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모두들 신경을 쓰지 않는 듯.
- 오늘 마지막 공식 일정은 review meeting.
 - 복음 제시를 진료 전에 함. 사람들이 더 복음에 집중하는 것 같았음.
 - 장소가 넓어 organize 가 잘 되었다. 가던 중 제일 좋았음. 끝무렵 사람들이 교실/진료실 안으로 들어와 기다리고 구경하는 것이 좀 혼잡했음.마지막에 더 오는 환자들을 야박하게 끊은 것이 마음에 걸림.
 - 이선교사님: 다른 선교팀과 다른점은 잘 웃으며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그러나 진료 받는 방 안에서는 웃지 말 것. 진지하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 밤 10 시 반경부터 자유시간.
- cot 보다 벤치 두 개 붙이고 자는 것이 편하다는 의견에 나도 그렇게 해 보기로 함.

1/14/2007 일, 사역지 - Cepeda, Halacho

- 주일이므로 7 시 QT 대신 9 시 예배드리기로 함.
- 아침 식사: 사발면과 밥.
- 9 시 주일 예배. 김석년 장로님 사회. 이종하 선교사님 설교: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곳 사람들은 대개 카톨릭신도라 하지만 잘못 믿고 있음. 이곳 여신과 성모 마리아를 합한 것을 교황이 인정했다고 함.
- 사역지인 Cepeda 장로교회까지 30~40 분 drive. 돌이 많은 비포장 도로. 밴이 매우 낡아 매연이 차안으로 들어옴. 먼지가 날렸으나 창문을 열었음.
- 95 F 될 듯한 화창한 날씨.
- Cepeda 는 비교적 큰 도시. 중앙 분리대와 가로등이 downtown 에 있음. 자전거가 많음. motorcycle 도 종종 보임.
- 예배실을 복음 제시와 진료 장소로 씀. 유카탄 의료 선교의 typical 한 장소라고 함. 11 시 경에 사역 시작.
- 안내는 이 교회 분이 맡고 예배당 밖에서 벤치를 놓고 기다리게 함. 복음 제시는 전날과 같이 진료 전에 하고 선교사 사모님과 이 교회 목사님이 맡음. 오후엔 선교사님이 수고.
- 1 시에 점심: 메뉴는 어제 저녁에 먹은 짜장밥. 두 번 먹어도 어찌 그리 맛 있는지. 선교여행 후 몸무게가 늘었다는 말이 사실인 듯.
- 이 교회 교인이자 FM101.3 기자인 Russel 이란 청년이 이우범 장로님과 인터뷰. 현 의료 선교에 대한 설명과 장기 선교에 대한 vision 제시. 내년엔 TV 인터뷰가 있을 것이란 말이 있었다 함.
- 10 명 머리 깎음.
- 노방전도를 우리끼리 함 - 우리끼리는 처음이라 함. 근처에 공연이 있어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음. 길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우리들의 접근에 친절하게 응하기는 했으나 공연가는 데에 마음이 빼앗긴지라 집중이 안됨. 마당에 들어가서도 전도. 사람들이 친절해서 점점 자신이 생김. 4 명리를 바탕으로 만든 카드를 읽고 Evange Cube 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복음 설명. 잘 읽지도 못하는 우리를 보고 읽는 것을 도와주려는 사람도 있었음. 말이 잘 안되는 통에 멋적어 소리내어 웃으니(안남희 집사님) 그들도 따라 웃어 분위기가 오히려 좋아짐. 어느 집에선 여러 식구들이 모여 habanero(아주 매운 고추의 일종)를 고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방문 함. habanero 한 꾸러미 선물을 받음.
- 이 교회 목사님과 다른 두 분의 성실한 도움이 눈에 띄임. 사역 후 우리가 예배실을 정리하려 하자 그들이 사양.
- 이우범 장로님의 소감: 유카탄 의료 선교 중 오늘이 제일 organize 가 잘 되었다 함. 진료 150 명, 돌보기 안경 약 50 개.
- 돌아갈 밴을 기다리는 동안 음악 소리가 요란한 공연장을 잠시 구경. 무대에 선 사람들은 모델같이 잘 생기고 늘씬함. 이 지방 사람들과는 판이한 모습. 무대 앞에 댄스하는 공간이 마련되었고 두세 쌍이 댄스하고 있었음. 맥주 파는 곳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장집사님에게 손을 흔듬. 아까 전도할 때 만난 사람인 듯. 팀내에서도 밖에서도 장집사님은 인기가 많음 - 이를 분석해 보자는 말도 있었음.
- 이곳 주일 예배는 저녁에 드림. 6 시 30 분 Santo Domingo 장로교회에서 예배. 밴드의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 몇몇은 뒷자석에 앉음. 이 교회 전도사님은 주중엔 신학교에 다닌다고 함. 예배후 우리와 작별인사.

- 저녁 식사 메뉴는 김치 볶음, 김치 통조림을 갖고 왔음.
- 샤워를 하고 속옷을 빨려고 빨래 널 것을 보니 빨랫줄에 속옷 널 것이 안보임. 김장로님께 물어보니 속옷은 보통 여러 벌 갖고 와서 빨지 않고 짐속에 넣어 둔다고 함. 괜찮으니 빨아 널어도 된다고 함. 나중에 보니 몇몇 남자분들은 숙소(예배실)에서 말리고 있었음. 밖에 널었던 것을 얼른 걷어다 안에서 말림. 신참이 분위기를 파악해야 할 사안.
- Review meeting
- 자기 전 강장로님이 키보드를 치며 찬송하는 것이 점점 확대되에 타악기가 동원됨. 소리를 듣고 여자분들도 참여함. 한동안 즐거운 무대 찬양이 연출됨. 사진을 찍었는데 아마 공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됨.

1/15/2007 월, 사역지 - San Mateo, Halacho

- 7 시 QT. '오늘의 양식' 주제: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하라. 이사야 58:1-12. 지불해야 했던 댓가. 그들의 안이한 영적 상태. 가식적인 종교 예식(=습관). 이사야처럼 우리도 자유를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 아침 식사: scramble egg, ham, bread.
- 11:20 AM 에 San Mateo 에 도착. 원래는 촌장집에서 진료하기로 되어 있었음. 화장실이 없으므로 큰 것은 미리 준비하라는 충고. 도착해 보니 촌장이 학교에서 진료할 수 있게 준비함.
- Escuela Primaria Ignacio Allende (elementary school)에 두 교실이 있고 한 교실에 수업 중이던 아이들이 다른 교실로 이동함. 한 학년(아마 4 학년 되는 듯한 체격들)인 듯. 유니폼을 입고 있었음.
- 마을이 아주 깨끗했음. 70~80 가구의 작은 마을. 교회가 없는 마을 (멕시코의 어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카톨릭 교회는 있음 - 학교 앞에.)
- 첫날 두째날과 같은 볶음 제시, 의료 봉사, 돋보기 안경, 머리 깎기.
- 전날의 경험으로 힘을 얻은 안남희 집사님과 김석년 장로님은 Becky 에게 볶음 전도에 관련된 문구를 Spanish 로 배우며 카드에 정리. 거리에서 만난 teenager 와 아이스크림 장사 부부에게 전도. 시간이 정오 근방. 낮잠 자는 시간이라 사람들이 집에 있는 듯. 용기를 내어 집을 방문하기로 함. 그들은 우리를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재미있게' 들음. 전날과 달리 오늘은 결심하는 기도를 따라하게 함. 그 뜻을 알고 따라하는 듯한 느낌을 받음. 우리는 곧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치지 아니하시리라.
- 점심 식사: 짜장밥, 밀반찬 종류.
- 다른 분들로 구성된 노방 전도팀이 오전과 다른 방향으로 감. 결과적으로 그 방향에는 집들이 없어 수확이 별로 없었음.
- 오전에 전도하며 보았던 사람들을 진료하는 학교에서 다시 봄. 작은 마을.
- 진료 70~80 명. 남자들이 많기는 처음 - 일자리가 없다는 힌트. 돋보기 안경 34 개 제공.
- 머리 깎기. 아이들에게 이가 많음. 보통은 깎꿈을 떠는 성격이라는 김정희 권사님은 차분히 깎으셨고, 이영자 장로님은 머리 감기면서 '의로운 사랑' (손희영 목사님의 부흥회 설교 참조)을 생각했다 함. 황청수 장로님은 사랑으로 참으려 애쓰셨다 함.
- 저녁 식사 전에 Review meeting
- 촌장집에서 저녁 식사 초대함. 이선교사님이 초대를 여러 번 확인 함. 왜냐하면 빈 말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함. 이들은 시간 관념이나 약속 지키는

것에 둔감한 경우가 많다고. 모두들 가고 싶어하지는 않았으나 성의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라 초대에 응함. 전에 심하게 배탈난 경험이 있다는 황장로님은 사양. 이장로님이 설사를 억제하는 항생제를 각자에게 배급함. 촌장집은 비지니스하는 집이라 보통 가정집보단 훨씬 컸음. Video game 오락기구와 콜라등을 파는 소규모 상점이 붙어 있었음. 우리들 끼리만 앉아서 식사를 함. 촌장이 식사전 잠깐 얼굴을 보임. 메뉴는 thick chicken noodle soup 이라 불릴만한 음식에 따끈한 baked tortilla, 그리고 양파 비슷한 채소를 썬 것이 나옴. 음료는 코카콜라. 다들 맛있게 먹음.

- 자기전 1 시간정도 음악 감상에 대하여 심도 깊은 대화 - 이장로님, 강장로님, 이선교사님. 강장로님이 60 년대에 종로 2 가에서 음악감상실 하셨던 것을 처음 알았음. 배경 음악이 들리신다는 이장로님. 좋은 음향기기에 빠졌었다는 이선교사님.
- 식사 후 잘 때까지 속이 부글부글 거림. 탈이 나는 것 같아 긴장함. 기도하고 일단 자 보기로 함.

1/16/2007 화, Merida 로 이동

- 아침에 일어나니 뱃속 사정이 정상임. 각자에게 어제 저녁에 먹은 약이 다시 배급됨. 이것으로 저녁 식사에 대한 조치는 끝. 아무도 배탈나지 않은 듯.
- 아침 식사는 coffee/tea, bread, peanut butter, jam.
- 아침 QT 는 이우범 장로님이 주재. '오늘의 양식' 주제는 검색해 보라.' 창세기 39:1-12.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행동으로 본 Integrity 에 대한 말씀.
- Merida 로 가는 밴의 상태가 안 좋은 듯하고 짐과 사람을 싣기엔 작은 듯 하여 여러 의견이 있었음. 일단 선교사님 댁까지 가 보기로 함. Cot 를 의자 밑에 넣으니 짐 문제가 해결됨. Steering oil 이 새서 정차 때마다 보충하며 감.
- 각자의 passport 를 이해숙장로님이 보관하시기로 함.
- Merida 가는 동안 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끄시는 이해숙 장로님의 조크 무대가 펼쳐짐. 이우범 장로님과 황청수 장로님도 조크에 참여함.
- 이선교사님 댁에 도착. 정원이 잘 가꿔진 1 층 집. 직접 설계하셨다 함.
- 컴퓨터가 있어 집에 email.
- 점심은 정원에서 키운 상추, 썬등 신선한 채소, 그리고 밀반찬.
- 이선교사님, 황장로님, 장집사님과 같이 Dzidzantun 장로교회 방문. 9000 명 인구에 5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함. 여호와와 증인 교회도 하나 있다고 함. 60 년된 교회인데 도움을 받아 새 건물 (유카탄에서 보던 교회 건물중 가장 크다고 함)을 지었다 함. 약 5 마일 떨어진 곳에 새 지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을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안내함. 어른 20 명 어린이 25 명 정도 모여 있었음. 빵과 콜라를 대접 받음. 준비가 안되었지만 약간의 금일봉 전달.
- 저녁에는 이 선교사님 내외가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하여 도움을 주는 Alcance Victoria De Mexico A.C. (재활원)을 방문. 약 20 명은 되는 듯. 황청수 장로님이 영어로 설교하고 Becky 가 통역함. 진료하고 - 비타민 한달 분 - 돋보기 안경이 필요한 분들에게 안경을 지급함. Sandwich 를 저녁 식사로 제공. 선물로는 티셔츠와 치약.
- Becky 는 우리가 타고온 밴 편으로 자기 집에 감.
- 선교사님 댁에서 저녁 식사. 메뉴는 미역국에 신선한 채소.
- 황장로님과 같이 이선교사님 컴퓨터의 한글 setup 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함.
- 유카탄 지도로 다닌 곳을 review.

- 이장로님을 방에 주무시게 하고 우리 남자들은 거실에서 잠.

1/17/2007 수, 한인 후예들의 발자취를 찾아서

- 아침 QT 는 장재희 집사님이 인도 - 시간 날 때마다 지난 이틀 동안 준비한 것임. '오늘의 양식' 주제는 '어느 길?' 고린도전서 1:18~31. 간단한 장집사님의 간증. 성령이 임재함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는 여러 분들의 소감.
- Merida 에서 뱀을 빌림. 우리 선교팀과 안면이 있는 운전사가 옴. 시간을 잘 지키고 proactive 한 사람이라 함.
- 한인 후예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는 Oncan 의 교회를 방문. 순복음 교회에서 최근 장로교회로 바꾸었다고 함. 650 명 마을 인구. 4~5 대 한인 후예인 장씨가 촌장을 지낸 곳. 진씨 아줌마의 자녀들을 만남. 그 아들과 사진을 찍음. 노환중인 한인 후예 할머니 방문.
- 구 에니깁(Henequen, 용설란의 일종, 나일론이 나오기전 밧줄의 원료로 쓰였음) 농장에 있던 사설 감옥을 방문. 1905 년 1030 명의 한국인 에니깁 농장에 5 년 계약으로 옴. 하와이 가는 것으로 속아서 왔다 함. 5 년의 노예와 같은 생활후 고국에 돌아가려 했으나 한일합방 이후라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됨.
- 그분들이 내렸다는 선착장 방문. 우리 교회에서 유카탄 단기 선교를 처음 시작할 당시 교회를 방문한 김희웅 목사님이 낭독한 시가 생각남. 검은 옷을 입고 바다를 향하여 울고 있는 아낙네들의 환영을 보고 지었다는 시.
- 근처 바닷가에 있는 resort 에서 쉼. 오후 1 시부터 4 시 반까지 buffet.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해결하라는 지시(?). 이 비용은 각자가 낸 회비에 포함 되었음.
- Review meeting - 이번 선교 여행의 전반에 대한 review
- 이선교사님 내외분이 영적 충전에 사용하신다는 DVD 중 일부를 봄. 전문 사역자 - 목사, 선교사 등등 - 를 위하여 미국 어느 institution 에서 제작된 것임. 내용은 integrity 에 대한 것.
- 저녁 간식으로 라면.
- 이장로님과 김장로님을 방에 주무시게 하고 남은 남자분들은 거실에서 잠.

1/18/2007 목, 집으로

- 아침 4 시에 기상
- 어제의 뱀으로 공항에 도착. Security 가 심함 - 나중에 알고보니 미국에서 orange alert.
- 아침 식사로 약식/떡. 간식으로 nut 과 grain 볶은 것.
- 아침 6 시 55 분 이륙.
- Houston 에서 세관 통과
- 오후 2 시 10 분에 Minneapolis 에 도착. 여러 분들이 마중나옴: 이목사님 내외, 임항순장로님, 이충렬장로님, 그리고 가족들 - 양장로님, Mrs. 장, Mrs. 황, 강장로님 둘째 아들과 여자 친구.
- Lucky China 에서 늦은 점심 식사 - 요리는 안되고 면으로 통일 - 후 헤어짐. 나는 이목사님의 차로 집에 옴.



4. 성시 감상 / 밤 기도- 김남조

하루의
짜여진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 이속히
먼데서
오는 듯만 싶은
내 영혼과
나만의
기도 시간

날마다의 끝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새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이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살아지이다

주님.
단지 이 한 마디에

<김남조>

천지도 아득한
눈물



5. 추억의 영화 / 닥터 지바고



미네소타로 이사 오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로 부터 처음 들은 미네소타에 대한 이야기는 눈 이야기였어요. 미네소타는 낙엽이 지기 시작하면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새순이 돋을 때까지 줄창 눈이 온다더군요. 산도 없는 끝없는 벌판에 여기저기 얼어붙은 호수가 뿌려져 있고, 그 위로 겨우내 눈이 온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오래 잊혀졌던 몇 가지 영상이 머릿속에 떠오르더군요. 눈 덮힌 끝없는 벌판을 달리는 기차, 바리끼노의 눈 덮힌 별장을 향해 달리는 말이 끄는 눈썰매,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버림받고 쫓기며 상처받은 갈 곳 없는 두 연인, 적군(赤軍)으로부터 탈출하여 무릎까지 빠지는 눈 덮힌 설원을 정처없이 걷던 유리 지바고의 모습...

유리 안드레이비치 지바고(오마 샤리프)는 어려서 양친을 잃고 어머니의 친지인 그로미코 가(家)에 의탁하여 모스크바의 상류층에서 자라나지요. 촉망받는 젊은 의사이기도 하지만 시인으로도 해외에서까지 이름을 얻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그는 의과대학 Boris Kurt 교수의 조수로서 음독 응급 환자를 진료하러 왕진을 갔다가 거기서 라라(줄리 크리스티)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기차길 옆 허름한 양장점의 주인인, 라라의 어머니 아말리아는 사별한 남편의 친구 코마로프스키와 내연 관계에 있었지만 그가 철 모르는 17 세난 고교생 딸 라라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음독을 하고만 것이지요. 지바고는 라라의 집에서 그녀가 아버지뻘의 중년의 코마로프스키와 불륜의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의 음독에 라라는 코마로프스키와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이상주의자인 볼세비키 청년 파샤 안티포프와 결혼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녀의 육체를 탐닉하던 코마로프스키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파샤와 결혼하겠다는 라라에게 들려주는 코마로프스키의 대사가 인상적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타입의 남자가 있다고... 이상이 높으며 순수하지만 여자를 힘들게 만드는 남자와 순수하지도 이상이 높지도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순응하지만 여자를 편하게 해주는 남자가 있다고... 파샤와 자신을 비교하여 하는 말이죠. 그는 그리고는 여자도 두 종류의 여자가 있다며 첫째 유형인 요부형인 라라는 자신과 같은 부류에게나 어울린다는 말로 라라를 능욕합니다.

모스크바의 거의 모든 상류층 인사들이 총망라되어 모인 크리스마스 파티, 어머니의 음독과 자신의 처지에 비관한 라라는 코마로프스키와 자신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약혼자 파샤에게 편지로 적어보내고 말 그대로 중인환시리(衆人環視裡)에 코마로프스키를 총으로 쏘아서 크리스마스 파티장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하지만 총탄은 그의 왼팔을 스쳐서 비교적 경미한 상처만 입힙니다. 코마로프스키는 사람들에게 불들린 라라를 놓아줄 것을 부탁하지요. 바로 그때 라라의 뒤를 따라왔던 파샤가 둘러싼 인파를 헤치며 라라에게로 나아가, 후들거리는 다리를 채 가누지도

못하는, 라라를 부축하여 파티장을 빠져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좌중을 압도하던 파샤의 그 카리스마 넘치는, 냉정하고도 도도한 얼굴은 지금도 선연히 기억되네요. 총격 현장에 있었고 코마로프스키의 총상을 치료한 지바고는 이렇게 또다시 라라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4 년이 지난 후, 지바고와 라라는 전쟁터에서 다시 만나게 되지요. 그로미코 가(家)에서 오누이처럼 자란 토냐와 결혼한 지바고는 1914 년 독일과의 1 차대전이 발발하자 군의관으로 전선에 파견됩니다. 라라는 파샤와 결혼하지만 이상주의자 파샤는

중년의 코마로프스키에게 농락 당하고 순결을 잃은 어린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끝내 건디지 못하고 결국 그녀를 떠나고자 참전하여 전쟁터에서 행방불명됩니다. 라라는 남편을 찾아서 전선에 자원하여 간호사로 오게 됩니다. 지바고는 라라를 만나자마자 그녀가 4 년전 “크리스마스날 밤의 그녀”라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보지요. 전선의 야전병원에서 함께 일하게 된 지바고와 라라는 서로에게 끌리게 되고… 피차 각각 존경과 연민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감정은 결국 서로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는데까지 발전합니다.

라라가 근무를 마치고 후방으로 돌아가게 되자 함께 더 있기를 원하는 지바고를 뿌리치고 라라는 이별을 택합니다. 지바고와의 관계가 더 발전하여 그가 아내 토냐에게 속일 일이 생기는 것을 라라는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두 사람이 이별하는 날, 지바고를 뒤로 하고 후송 마차에 오른 라라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는 지바고의 눈망울이 젖어가지요. 그녀가 떠난 덩그마니 빈 야전병원, 라라가 아무렇지도 않게 꽃아 놓은 화병의 해바라기에서 커다란 꽃잎이 무슨 굵은 눈물 방울처럼 하염없이 떨어지지요. 카메라는 이를 놓치지 않고 오래 클로즈업하여 보여줍니다.

계속되는 독일과의 1 차대전은 러시아 경제를 더욱 핍절한 상태로 몰고 가고 1905 년부터 시작된 사회 혼란과 혁명의 물결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로마노프 왕조를 뿌리채 흔들어놓습니다. 결국 로마노프 왕조는 붕괴되고,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으로 인하여 내전 상태에 들어갑니다. 망명에서 귀국한 레닌을 수반으로 모스크바 일원과 페테부르크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를 수립한 혁명 세력인 적군(赤軍)과 외세의 지원을 받는 왕정 수구 세력인 백군(白軍) 간의 피의 내전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 두 세력은 서로 피 비린내 나는 살육을 자행하며, 죄 없는 많은 민중을 혁명분자로 또 반혁명분자로 몰아서 수없이 살상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혁명 정부는 독일군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1918 년 3 월 3 일 독일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종전 협정을 맺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의 항복이었죠.

오랜 전쟁에 시달리다가 돌아온 고달픈 병사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편안한 안식이나 아니라 낯설은 혁명과 피 비린내 나는 내전과 숙청의 소용돌이였죠. 유리 지바고도 종전과 함께 아내 토냐와 아들 사샤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는 12 가구의 프로레타리아 가구가 들어와 동거하고 있죠. 어리둥절해 하는 지바고에게 인민위원장이 비난조로 말합니다. “13 가구가 살 수 있는 이 집에 혁명 전에는 너희들 달랑 한 가구가 살았다”고….

가족들과의 반가운 재회 끝에 함께 한 식탁에서 지바고에게 묻는 아내 토냐의 대사가 재미있습니다. “당신 편지에는 미세스 안티포프(라라) 이야기 뿐이었는데 그녀는 어떻게 되었나”고... 온통 라라에게 마음을 빼앗긴 순진한 지바고는 토냐에게 쓰는 편지에도 그녀의 이야기로 채웠던 것 같습니다. 섬세한 여자는 글 한 줄에서도 자기 남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아챌 수 있죠. 하지만 어질고 착한 토냐는 지바고를 더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라는 이미 그녀가 파샤와 결혼하여 살던 멀리 우랄 산맥 저편의 그라도프로로 가 버린 후였지요.

겨울이 닥친 모스코바, 경제난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흑한을 불기 없는 방에서 보내던 지바고는 어느날 밤, 참다 못하여 밤에 몰래 남의 집 담장을 뜯어다가 땀감으로 쓰러다가 적발되지요. 이는 혁명 정부의 규례를 어긴 것이라 반혁명분자로 몰려 숙청될 수도 있는 큰 죄였죠. 하지만 유리 지바고는 혁명 정부의 비밀 경찰 간부 직에 있던 말로만 듣던 이복형 예브그라프 지바고(알렉 기네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예브그라프는 지바고에게 또다른 도움을 줍니다. 지바고의 시(詩)들이 너무 자유분방하고 감성적이며 반혁명적인 요소가 많아 곧 숙청 대상으로 지목될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준 것이었죠. 그는 지바고에게 혁명 정부의 영향권 밖에 있는, 그로미코 가(家)의 영지가 있던 우랄 산맥 저편의 바리끼노로 피해서 추이를 지켜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지바고 일가는 예브그라프의 조언대로 모스코바를 떠나 바리끼노로 떠나지요. 열차는 좌석도 없는 거의 화물 열차 수준입니다. 10 일간의 오랜 여행 끝에 우랄 산맥을 넘어 바리끼노에 도착한 지바고 일가를 맞이한 것은 그로미코가의 별장의 정문에 못박힌 ‘인민위원회가 별장을 징발하였으므로 허가없이 출입하는 자는 반혁명분자로 간주한다’는 팻말이었죠. 지바고 일가는 하는 수 없이 별장 옆의 헛간에 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바고 일가는 거기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며 혁명의 격랑을 피해서 살아갑니다. 모스코바에서 피신온 이들에게 지방의 혁명 세력들이 가혹하게 하지 않은 것은 아마 그로미코 가(家)의 영지 지배가 무척 관대했던 때문이었겠죠...

겨울이 되어 한파가 몰아닥치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옥외에서 소일할 거리도 없어서 집안에서 무료해 하는 지바고에게 토냐는 근동의 중심 도시인 유리아틴에 다녀와 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거기에는 비교적 큰 도서관도 있다고... 하지만 지바고는 유리아틴에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라라 안티포프가 살고 있고 그녀가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라라를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워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유리아틴에 쉽게 갈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듬해 어느 가을날, 지바고는 결국 유리아틴에 가게 됩니다. 도서관에서 너무도 그리워하던 지바고가 온 것을 보고는 라라는 기쁨에 뛰는 마음을 진정할 수 없지요. 마음 속에서 이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라라는 그녀에게 다가오는 지바고를 차마 눈을 들어서 바라보지 못합니다. 재회한 두 사람은 거의 열싸안다시피하며 도서관을 나섭니다. 거리의 벤치에서 두 사람은 그토록 길고 길었던 그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지요.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이 낙엽이 바람에 불려서 뒹구는 길 가의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 마치 낙엽이 흐르는 강가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라라의 집으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은 그 오랜 동안을 참고 참았던 걱정을 못 이기고 하나가됩니다. 라라의 침대에 누운 두 사람... 라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서 마음도 몸도 그리고 영혼까지도 하나가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아내가 있는 사랑하는 연인은 품고 있어도 유리아틴에서 바리끼노까지보다도, 그리고 지구 이편에서 저편까지보다도 더 멀리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먼 거리가 너무 서글프고 가슴이 아리고 아팠던 것이지요.

그 후로 모스크바에서 와서 바리끼노에서 어설픈 솜씨로 농사를 짓던 시인이자 의사는 주민들을 치료하기 위해 의약품을 구하러, 또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자꾸 생겨서, 유리아틴에 보다 자주 다니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살진 봄 햇살을 받아 피어나는 들판 한 모퉁이, 지바고의 헛간을 개조한 집 앞의 조그마한 발을 돌아보던 만삭의 아내 토냐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다가 지바고는 말을 집어 타고 유리아틴으로 달려갑니다. 참고 참으며 또 스스로를 속이며 눌러온 죄책감이 결국 그를 라라에게 달려가게 한 것이죠.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연인의 이별의 말은 비수처럼 라라의 가슴을 찌르고, 이를 불평도 원망도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라라는 아픈 마음을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이제는 다시 당신을 보러오지 않는다고 내 말을 믿느냐’고 다그치는 지바고의 말 앞에서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라라는 고개를 가로젓고 또 가로젓지요...

유리아틴에서 바리끼노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지바고의 말은 마치 주인이 갈 곳없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이 어정거리고 또 어정거립니다. 가족과 아내에게로 선선히 돌아가기에는 눈물 범벅이 된 라라의 얼굴이 눈에 밝히고 그렇다고 라라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녀를 안아 주고 그녀에게 자신의 이별의 말을 철회하겠다고 말하기에는 만삭의 아내 토냐가 눈에 밝혔던 것이지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란 어느 유행가의 가사는 이럴 때 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한 무리의 적군(赤軍) 기마대가 달려나와 조용히 지바고와 그의 말을 쓸어갑니다. 그들은 군의(軍醫)가 필요하여 유리아틴과 바리끼노를 자주 오가던 의사 지바고를 납치할 생각에 그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바고는 아무런 저항도 불평도 없이 끌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마음 둘 곳을 모르던 지바고는 결국 본의 아니게 두 여자로부터 이별하여 정처없이 전장을 헤매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적군(赤軍) 빨치산 부대의 군의관으로 종군하게 된 지바고는 무려 2 년 동안 골육상잔의 전쟁의 비참함과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 당하는 민중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자와 어린이들이 집을 잃고 눈 속에서 살길을 찾아 유리 방랑하게 되고, 채 어린이를 벗지 못한 청소년들이 전장에 내 몰려 총알받이로서 스러져가는 것을 보고 지바고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눈 보라치던 날, 지바고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더 견디지 못하고 적군 부대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눈길을 걷고 또 걸어서 그리고 열차에 무임 승차하여 2 년만에 유리아틴에 돌아옵니다. 가족들에 대해 수소문해 보지만 그들은 오래 전에 바리끼노를 떠났다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래서 지바고는 그 언젠가 늘 그랬던 것처럼 라라의 집을 찾아가지요.

토냐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깨어난 지바고의 머리맡에는 그리운 라라가 지키고 앉아있죠. 반가운 재회 끝에 지바고는 토냐가 납치된 지바고의 행방을 알기 위해 유리아틴의 라라에게 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민망해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토냐가 라라의 집에 남기고 간 편지에는 가족들은 해외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혁명의 소용돌이를 벗어나 프랑스로 간다는 소식이 담겨있습니다. 혼자 남겨진 지바고는 라라의 집에서 동상을 치료하며 몸을 회복해 갑니다.

그러던 어느날 밤, 라라의 집에 누군가 찾아오지요. 코마로프스키였죠. 그는 혁명의 소용돌이를 피하여 국외로 탈출하는 중이었죠. 그는 유리아틴을 지나며 라라의 남편 파사가 스트렐리니코프라는 이름으로 우랄 지역의 혁명 세력의 지도자로 이름을 떨치다가 숙청되어 라라의 신변이 위험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라라와 같이 국외로 탈출하고자 라라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지바고와 라라는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두 사람은 어린 라라를 유혹하여 그 육신을 탐하고 능욕하던 코마로프스키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위험한 유리아틴을 벗어나기 위하여 갈 곳 없는 지바고와 라라는 일단 지바고의 가족이 살던 바리끼노로 갑니다. 두 사람은 그로미코가의 눈 덮힌 얼어붙은 얼음 궁전과도 같은 별장에 잠간의 여장을 불안하게 풀지요. 하지만 상처받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쫓기는 사랑하는 두 영혼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른 새벽 잠에서 깬 지바고... 창 밖에는 늑대의 무리가 찾아와 얼어 붙은 집 주위에서 울어대지요. 지바고는 불을 밝히고 언 손을 불어서 녹이며 마지막 남기는 유서처럼 라라에 대한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시들을 씁니다.

라라와 지바고를 코마로프스키가 다시 찾아오지요. 그는 적군 빨치산으로부터 무단 탈영한 지바고도 반혁명 분자로 몰려 처형 당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서둘러 자신과 함께 국외로 탈출할 것을 재촉하지요. 코마로프스키의 제안을 뿌리치고 바리끼노로 피해 왔지만 라라에게 조금도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할 수 없는 지바고는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바고는 라라에게 코마로프스키와 먼저 떠나면 자신이 뒤따라 가겠다고 하고 두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자신과 라라가 함께 코마로프스키를 따라 나설 경우 그가 최악의 경우에도 라라를 헌신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라라와 이별하고 자신은 바리끼노에 남는 선택을 한 것이지요.

영원히 이별하게 될 줄도 모르고 곧 다시 만날 줄 알고 코마로프스키와 눈썰매를 타고 떠나는 사랑하는 라라를 지켜보는 지바고의 마음은 찢기듯 아파옵니다. 두 사람이 탄 썰매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자 멀어져 가는 라라의 마지막

뒀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지켜보려고 지바고는 집 2 층으로 달려가서 창문을 깨고 눈 덮힌 지평선을 바라보지요. 지바고가 가물가물 멀어져서 점이 되어가는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는 이 장면이 이 영화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인상적인 것으로 기억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고 또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혁명 세력은 안정을 되찾아 정권을 확실히 다지게 됩니다. 여러번의 숙청의 위기를 인민군대(적군) 고위장성이된 형 예브그라프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넘긴 지바고가 처음으로 인민병원에 출근하던 날, 지바고는 전차에서 창밖으로 낮익은 모습이 스쳐지나는 것을 보게됩니다. 바로 꿈에도 잊지 못하고 그리던 라라의 모습... 너무 반가운 나머지 라라를 쫓아가기 위해 부랴부랴 전차에서 내린 지바고는 그녀를 따라가며 멀어지는 그녀를 부르려다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지바고 주위에 몰려드는데 라라는 등 뒤에 누가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모르고 계속 제 갈길을 갑니다. 이때 카메라는 long take 로 라라가 길 모퉁이 저편까지 멀어져 가는 모습을 오래도록 따라가며 잡아서 보여주지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 가끔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원작 소설 그리고 작가

이 영화는 1958 년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자전적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지요. 표면적으로 보면 가정을 가진 남녀의 불륜이 소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을 들여다 보면 이 소설은 대대로 지배 계층에 의해 착취와 수탈을 당하고 공산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둘리키며 신음하는 러시아 민중에 대한 지식인으로서 작가의 연민과 애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라라는 러시아 민중 또는 작가의 조국 러시아를 상징하는 캐릭터이고 소설 속의 지바고는 작가의 분신이자 러시아 지식인을 상징합니다. 또한 작가는 지바고의 눈으로 내전의 와중에서 인간성을 말살 당하고 전체주의의 횡포 아래 신음하는 인간 군상을 애정 어린 눈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스탈린 사후에 후르시초프의 집권으로 잠시 만연한 자유주의적인 분위기에서 터져나올 수 있었던 동토로부터의 비명, 고발이라 볼 수 있는 이 소설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으로 인하여 작가는 고국에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10 월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모독한 반동적인 작품을 썼다는 이유에서 소련 매스컴의 비난이 쏟아지고 작가 동맹은 그를 제명하기에 이릅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작가가 노벨상 수상을 거부한 후로도 그에 대한 비난과 추방 여론이 잦아들지 않게 되자 작가는 “사랑하는 조국 러시아를 떠나는 것은 내게는 죽음보다도 더 가혹한 것”이라고 흐루시초프 서기장에게 탄원하여 추방을 면할 수 있었지만 심적 고통과 그간의 고초로 병을 얻어 노벨상 수상 후 2 년 뒤에 숨을 거둡니다.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1962)를 촬영한 데이비드 린 감독의 팀이 작품만 바꾸어 완성한 이 영화는 여러가지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지요. 작품에서 등장하는 눈 덮힌 설원이 대부분 더운 날씨에 촬영한 가짜라는 사실이나 바리끼노의 얼음에 뒤덮힌 별장도 알고 보면 흰 우레탄으로 만든 정교한 가짜라는 등... 그리고 지바고의 집 앞에 반발한, 바람에 흔들리던 수선화도 모두 키운 것이 아니고 촬영 당일날 옮겨 심은 것이라고 하지요. 아물든 데이비드 린 감독은 원작 소설의 서사적인 면보다는 서정적인 남녀의 러브스토리에 초점을 맞추며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는

선택을 하여 평단의 악평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1965 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하고 경합하게 되어 작품상 감독상 등 주요 상들을 양보할 수 밖에 없었지만 5 개부문을 수상하며 잊을 수 없는 클래식 명작으로 남게 되었죠.

6. 건강칼럼 – 고혈압 (Hypertension) /이민선 장로님



이번호에는 많이 성인들이 갖고 있는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우리가 고혈압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고혈압은 대개 아무런 증상이 없이 병이 진행되며 둘째로 거의 모든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는 얻게 되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고혈압이란?

혈압(blood pressure)이란 글자 그대로 혈관, 특히 동맥 내의 압력을 말한다. 혈압은 심장에서 밀어내는 혈액량이 많을수록, 동맥의 직경이 작을수록 올라간다. 안정시 혈압이 140/90 mmHg 이상이고 혈압조절을 위해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를 고혈압(hypertension)이라고 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을 본태성 고혈압(Essential Hypertension), 원인을 뚜렷이 알 수 있는 경우를 속발성 고혈압(Secondary Hypertension)이라고 한다.

고혈압 증상

고혈압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고혈압이 많이 진행되어서 말기 합병증인 심장마비나 중풍 등의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도 아무 증상이 없이 고혈압을 모르고 지낼 수가 있다는 말이다. 심한 말기의 고혈압은 몇 가지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 1. 두통, 2. 불면, 3. 혼동(confusion), 4. 혼수(coma) 등을 들 수가 있다.

고혈압의 원인

고혈압 환자의 90-95% 이상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인 본태성 고혈압으로 병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고 그에 반해 5-10%의 고혈압은 원인이 있는 속발성 고혈압으로 이는 대개 급작히 발병을 하고 본태성보다 높은 고혈압을 보일 경우가 많다. 본태성 고혈압은 유전적인 소인이 강하지만 자세한 원인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속발성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질환은 신장질환, 신부전증, 신장염, 부신피질 질환, 갑상선 질환, 혈관 질환, 대동맥 축약, 임신 중독증, 뇌압 상승을 일으키는 병 등을 들 수 있다.

고혈압 발병율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소들(Risk factors)

1. 유전성 요인: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는 경우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2. 비만(obesity) 3. 흡연(smoking) 4. 당뇨병, 5. 신장질환, 6. 과음(high alcohol intake) 7. 염분 과다 섭취 8. 운동부족, 9. 약물 (예: 부신피질 호르몬)

고혈압의 진단

고혈압은 혈압을 측정하여 진단한다. 건강한 사람도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혈압 측정을 해 보아야 한다. 혈압은 변동이 있고 또 여러 원인으로 상승할 수 있으므로 한 번 측정해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두 번 이상 외래를 방문하여 측정한 혈압이 기준치(140/90 mmHg) 보다 높으면 고혈압으로 본다.

고혈압은 보통 4 가지로 분류한다.

1. 정상 혈압

혈압이 120/80 이하인 경우 정상 혈압이라 한다. 어떤 보고서에는 115/75 를 기준으로 혈압이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심장 및 혈관 질환의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율이 증가하기 시작한다고 본다.

2. 고혈압 전기 (prehypertension)

수축기 혈압(systolic pressure)이 120-139 사이, 이완기 혈압(diastolic pressure)이 80-89 사이에 있는 혈압으로 고혈압이라고는 진단할 수 없으나 이같은 혈압을 갖고 있는 사람 2-3 명 중 한명은 이같은 진단 후 4 년 내에 고혈압으로 발전되는 확률이 높다고 한다.

3. 고혈압 1 기 (stage1 hypertension)

수축기 혈압(systolic pressure)이 140-159 사이, 이완기 혈압(diastolic pressure)이 90-99 사이에 있는 혈압.

4. 고혈압 2 기 (stage2 hypertension)

가장 심한 고혈압으로 수축기 혈압(systolic pressure)이 160 이상, 이완기 혈압(diastolic pressure)이 100 이상인 경우이다.

고혈압을 진단하는데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모두 중요하다. 50 세 이후에는 수축기 혈압치가 더 큰 의미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 이유로 50 세 이후에는 이완기 혈압이 정상이고 수축기 혈압만이 높은 경우의 고혈압이 가장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고혈압의 합병증(complications)

고혈압으로 인해 동맥 혈관에 가해지는 지나친 압력은 모든 신체의 중요 장기들을 손상시키게 된다. 혈압이 높을수록 또한 오래도록 치료치 않고 방치해 둘 수록 그 손상 정도는 심해지는 것이다. 그 결과 생기는 질환으로

1. 동맥경화 현상(Atherosclerosis) 2. 뇌졸중(Stroke) 3. 동맥류(Aneurysm)
4. 심장마비(Heart attack) 5. 심부전증(Heart failure) 5. 안구의 손상(Eye damage)

등을 들 수 있다.

고혈압의 치료

중년에 접어든 모든 성인 남녀는 몇 가지 중요한 자신의 수치(numbers)들을 알고 기억해야 한다고 본다. 즉 자신의 신장, 체중, 혈압 수치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이다.

특히 집안에 고혈압 환자가 있을 경우는 정기적인 혈압측정을 하여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 및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고혈압의 치료는 담당 의사의 지도와 처방을 필요로 한다. 다이어트(식이요법)나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습관의 변화는 혈압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습관의 변화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의사는 혈압약을 복용할 것을 환자에게 권고하게 된다. 이 때 의사는 그 환자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약을 첫번째 처방하여 주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개의 경우 여러가지 다른 약을 바꾸어 가며 투약하여 본 후, 그 환자에게 맞고 또 제일 잘 듣는 약을 찾아 내게 된다. 그러므로 환자는 의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의사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해야 할 것이다.

자기 요법(Self care)

생활 습관의 변화(life style change)는 고혈압을 예방할 뿐 아니라 이미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

1. 식이요법

고혈압 환자를 위한 식이요법(Dietary approach to stop hypertension)이 있는데 이는 과일, 채소, 전곡(全穀 whole grain), 저지방 낙농식품, 칼슘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하면 고혈압을 예방 내지는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2. 건강한 체중 유지

비만한 사람이 체중을 5 파운드만 빼도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운동량 증가

정기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어 줄 뿐 아니라 체중도 줄여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된다. 하루에 적어도 30 분 이상의 운동을 하도록 한다.

4. 음주

건강한 사람도 술을 마시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 금주가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하루에 여성 1 잔 남성 2 잔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한다.

5. 금연

담배는 혈관내막을 손상시켜서 혈관의 경화(hardening) 과정을 가속화 시킨다. 고혈압 외에도 여러가지 다른 건강상의 해를 끼치는 담배는 절대적으로 끊어야 한다.

6. 스트레스 관리

현대인은 일상 생활에서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받아며 살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가능하면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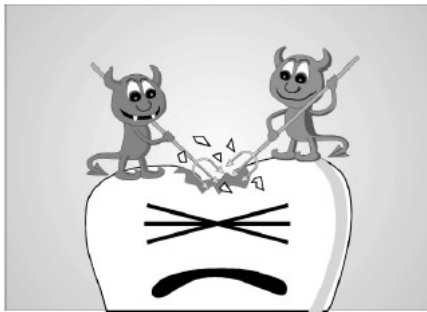
7. 심호흡

천천히 깊이 숨을 (코로) 들이 쉬고 또 천천히 숨을 (입으로) 내쉬는 심호흡. 이 같은 호흡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임상 보고가 있다. 우리 크리스찬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의 최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닐까 한다. 또한 심호흡을 할 때도 숨을 깊이 들이 쉴 때, 머릿속으로 “성령충만”이라는 어귀를 외우며 천천히 숨을 들이 쉬고 내 쉴 때, “주님 찬양”하며 숨을 내쉬다면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영적, 육적인 치료가 함께 있게 되어 기쁘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영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7. 일반 치과 상식 / 이 호 영 교우님

충치(Dental Caries, Cavity, Decay)는 왜 생기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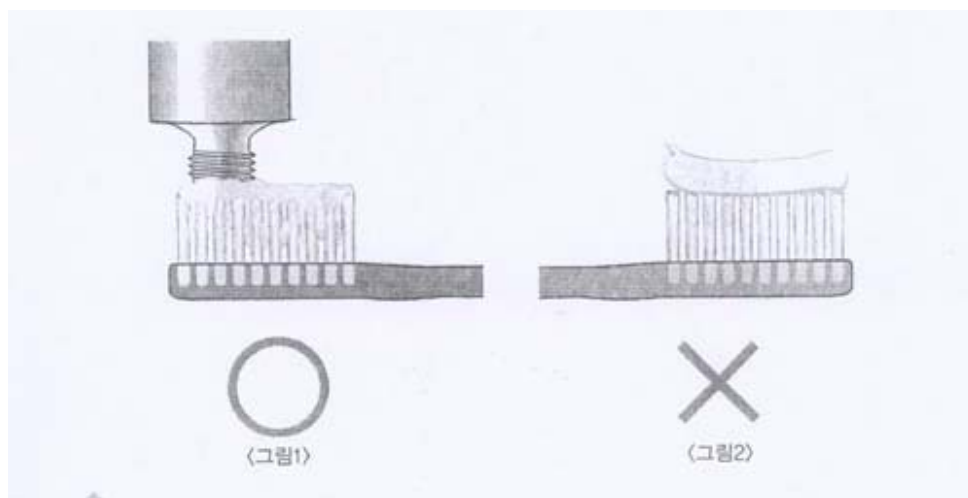
충치가 생겼다고 치아를 벌레가 파먹은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많은 세균이 있습니다. 이중 당분을 좋아하는 세균이 치아 표면에 붙은 당분을 분해 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산(Acid) 성분이 나와 치아를 녹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세균이 직접 치아를 갉아먹어 썩는 것이 아니라 당분을 먹고 난 찌꺼기인 산 성분이 치아를 부식 시키기 때문에 ‘치아우식증’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충치(치아 우식증)는 치아, 충치균, 음식물 3 가지가 함께 있어야 생깁니다. 이 세가지 중 하나를 없애거나 또는 둘 아니면 모두 없애면 충치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충치가 생기는 3 가지 요소를 조절하여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1) 치아에 불소(Fluoride) 성분을 바르거나, 불소를 넣은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산에 녹지 않도록 치아를 단단하게 만든다.
- 2) 충치균은 입안에 항상 존재하므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칫솔질로 충치균의 수를 줄일 수 있다.
- 3)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에 붙어 있지 않으면 충치균이 있어도 충치가 절대 생길 수 없으므로 칫솔질로 음식물 찌꺼기를 없앤다.

칫솔에 치약을 짜는 방법



칫솔모 위에 치약을 눌러 짜 칫솔의 솔 사이에 치약이 들어가도록 합니다(그림 1). 대부분의 사람들은 칫솔모 위에 치약을 얹는 형태로 짜서 사용하는데(그림 2) 이런 방법으로는 칫솔질 할 때 칫솔이 치아 면에 닿는 순간 치약이 미끄러져 떨어지기 쉽습니다.

올바른 칫솔질(Toothbrush) 방법이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쓸어 낸다 (Rolling Techni-que)

치아는 옆에서 보면 약간 둥근 형태를 하고 있어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칫솔을 옆으로만 문지르면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는 제거되지 않으면서 강한 칫솔모와의 마찰에 의해서 치아만 닳을 수가 있습니다. 치아의 손상 없이도 깨끗한 칫솔질을 하려면 잇몸에서 치아쪽으로 빗질 하듯이 칫솔을 쓸어내리는(올리는) 것입니다.

2) 치아를 닦는 순서를 정한다

칫솔질 순서는 특별히 좋다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 잘 안 닦이는 곳부터 합니다. 즉 뺨쪽보다는 혀쪽이 닦기 어려우므로 혀쪽 어금니쪽부터 닦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 바깥쪽을 닦고 마지막으로 씹는 면을 닦습니다. 순서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닦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적절한 시간동안 닦는다

한 부위 당 5-10 회 정도씩 반복해서 닦게되면 전체를 하는 시간이 약 3-4 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보통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1 분도 안되어서 칫솔질을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에 효과적인 칫솔질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4) 혀를 반드시 닦는다

혀를 닦는 특별한 기구도 있으나 칫솔을 이용하는 것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혀의 가운데 부분의 맨 안쪽 부위를 신경 써서 닦아야 합니다. 처음 혀를 닦으면 노란 것이 칫솔에 묻어 나오는데 이것이 입 냄새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칫솔질 방법

칫솔질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회전법(Rotary Technique)이 적당합니다. 치아의 바깥면은 칫솔을 잇몸과 치아에 단단히 대고 큰 동심원을 그리면서 칫솔질을 합니다. 혀쪽, 입 천정쪽, 씹는 면은 통상의 방법으로 옆으로 합니다. 또 칫솔질 할 때 혀를 닦아 주는 것도 입안의 청결과 입 냄새 예방에 중요합니다.

아이들 치아 닦아 주는 자세

어린이가 엄마 앞에 등을 기대선 상태(같은 방향을 보는 상태)에서 아이의 머리를 엄마가 왼팔로 감쌉니다. 엄마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아이의 뺨을 제끼고 닦아 주며 혀 쪽은 같은 형태로 뺨을 제끼고 후 칫솔대로 혀를 밀어 제끼고 후 닦아 줍니다. 윗니를 닦을 때는 닦을 부위를 더 잘 보기 위하여 아이의 머리를 뒤로 제끼고 후 엄마의 집게 손가락으로 뺨을 제껴서 치아를 닦습니다.



어떤 치약을 고를까요?

치약은 액상, 분말, 크림형, 고형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는 크림형입니다. 치약 성분은 세마제, 세제, 결합제, 습제, 물, 향미제, 감미제, 방부제, 예방치료제(불소)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치아가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세마제가 많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면 치아가 시리거나 마모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당한 치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 마모도가 강한 치약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

- 치태(plaque)가 잘 끼는 사람
-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 마모도가 약한 치약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

- 구강 위생 상태가 좋은 사람
- 치경부마모증(Cervical Abrasion)이 있는 사람
- 과민성 치아 증상이 있는 사람

칫솔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칫솔을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사용하면 칫솔모의 탄력이 없어지므로 깨끗하게 닦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칫솔을 2 개를 사용하여 하루 걸러 사용하는 것도 칫솔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칫솔질 후 칫솔통에 그냥 꽂아 두었던 칫솔에 우리가 모르는 세균이 하루저녁 60 배 이상 증식하고, 부패한 쇠고기에 있는 세균 보다 무려 5 배 이상 들끓고 각종 질병의 유발균이 칫솔에 우글거립니다. 그러므로 칫솔의 보관이 중요합니다.

칫솔질 후에는 흐르는 물에 칫솔모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칫솔모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치약의 잔여분이나 음식물의 찌꺼기는 칫솔의 위생상태를 불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칫솔을 깨끗하게 말려야 합니다. 시중의 어떠한 칫솔걸이를 이용해서라도 칫솔의 보관상태가 잘 말라 있을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이 남아 있으면 칫솔 안에서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청결한 칫솔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통풍이 잘되는 햇볕에 건조 시키거나 전용 칫솔 살균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치아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

1) 산성식품보다 알칼리성 식품이 좋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당분이 많은 산성 식품은 적게 먹도록 합니다. 우유, 치즈, 멸치, 생선이 치아에 좋으며 다시마, 미역, 콩, 녹황색 채소는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바꿔 주는 식품입니다.

2) 섬유질(Fiber)이 많은 야채가 치아를 튼튼하게 합니다.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오래 씹으면 치아 발달에 도움이 되며 치아 표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므로 자정작용이 일어납니다.

3) 원차가 충치를 막아 줍니다.

충치를 예방하는 성분이 있는 차를 자주 마십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한 일반 치과상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좋은 음식을 먹고 제대로 된 칫솔질은 치아의 건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병소의 조기 발견과 치료 및 예방치료도 병행한다면 옛부터 선인들이 말하던 오복의 하나인 치아의 건강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이호영 교우님께서 3 월 초에 치과 의원을 새로 개업하셨습니다. 병원 전화는 763-391-7522 이고 주소는 7767 Elm Creek Blvd, Suite #160 Maple Grove, MN55369 입니다. 웹주소는 www.mnleedental.com 입니다.

8. 그리운 얼굴 - 유일한 친구의 기도 / 고 정은순 권사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
커튼은 밤이나 낮이나 열려있나이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시리니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이제 지쳐있나이다.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매일 새벽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룩한 성전에 나아가
건반을 울려 찬양으로 영광돌리는 나의 친구,
그가 기도하는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일생을 주님 몸 된 교회 성직을 맡아
믿음으로 사시고
장수의 축복을 받아
딸의 큰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사오니
따님의 기도와 효도와 기도가 응답되어
편히 사시다가 주님 품으로 가시게 하옵소서.
또,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
들어주시어 거듭난 참 신자가 되어
영육이 잘 되는 축복 받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친구의 사랑은
옛날 요나단이 다윗을 더 사랑하여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고 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한 생일 축하 선물이
저 하늘 보좌 무지개같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눈동자같이 지켜 인도하시고
마지막 걷고 있는 이 길
내 마음대로가 아니요
성령의 무한하신 축복과 인도 아래
순간순간 그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시고
오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 편집자 주: 우리 교회 정태원 장로님과 정인숙 집사님의 모친되시며 우리 교회를 섬기시던 고 정은순 권사님의 육필 원고를 발견하셨다고 정태원 장로님께서 편집부에 원고를 보내오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생전에 옥합에 투고하시려 하셨던 듯 원고를 넣으신 봉투에 “원고”라고 적혀있었습니다. LA에 생존해 계시는 친구분을 생각하시며 주님 앞에 올린 간절한 기도를 적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9. 칭찬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봉사 / 김영미 집사님

나의 부족함을 반성하며 많은 분들의 도움에 감사하기 위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일에 자원하여 봉사하신 많은 분들을 칭찬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주일학교 성탄극에 필요한 의상을 맡아달라는 의견에 참으로 의아해 했습니다. 주일학교면 제 2 여선교회가 맡는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청년이된 내 아이가 참여하는 것도 아닌데, 바느질을 해 본지도 오래되는데...내가 해야하는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지 못한 채 부담을 갖고 진행했습니다.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목동...십여벌 정도로 예상하고 김윤정 전도사님께 원하시는 도안과 재료 구입을 청했습니다. 연말엔 개인적으로나, 교회에 많은 행사로 모두가 분주하니 빠른 시일내에 끝내기를 계획하고 있는 중, 만들어야하는 옷이 많이 초과된 소식을 듣고 서둘러 재료를 받으러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11월 18일 교회에 모여서 하기로 했지만 하루에 할 수 있는일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교회에 도착 하기 전까지만해도 부담스러웠고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 이유도 몰랐습니다. 교회에 들어서니 제 2 여선교회원들이 모여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정성을 다해 무대 장식을 위해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왜 옷의 갯수가 늘어 났는지 번듯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방황하는 시절을 보낼때 그들은 기억 난것이 주일 학교때 외웠던 성경 귀절, 불렀던 찬양, 연극... 등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 왔다는 간증을 합니다. 한 어린이라도 더 참여 시키고 소외되지 않게하기 위함이었구나.

재료를 집으로 가져오니 몇몇 제 2 여선교 회원들이 자원하여 가위를 들고 집으로 찾아와 재단을 도와 주었습니다. 18 일 토요일엔 여러 회원들이 재봉틀, 가위, 또는 다리미를 들고 그 새벽에 간식까지 준비해서 와 주셨습니다. 18 일 시간이 허락지 않으므로 집에서 해 주시는 분, 생각지도 않은 디모데 회원까지 재봉틀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연로하신 권사님도 찾아 오셔서 “내가 도울 일은 없오?” 물으셨습니다.

일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몇일간 구상하고 일하는라 수면이 부족했지만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재봉을 못하니 다림질이라도 돕겠다고 자원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쩌면 다리미질도 이렇게 professional 하게 하느냐고 칭찬을 하시며 겸손한 자세, 사랑하는 마음, 바늘 귀가 잘 보이지 않아 애 쓰며 서로 격려하고 성심을 다해 일하시는 모습 속에서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있구나. Christian 의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위해 나를 참여 시켜 주셨구나 하는 깨달음도 주셨습니다.. 바느질도 양전하고 꼼꼼하게 하시고 재단도 한치의 빼뿔어짐이 없게 자로 재고 줄을 긋고 선을 따라 자르는 자세에 비해 내가 갖고있는 것은 것모양 뿐인 것 같았습니다.

금요 크라운 재정 교실 공부로 교회에 가면 EM 교인들은 donkey/camel 및 소품을 만들기 위해 여러 주 늦은 시간에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신 Mr. Palmer 께서도 자원 도울일을 찾아 carpenter 일을 맡아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을 비롯 대사를 외우느라 분주한 어린이들, 이 일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너무도 감사합니다.

“MN 장로 교회에 3 년 다니는 동안 한번도 어린이 성탄 예배를 참석 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꼭 참석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 옆에서 “나도!” “나도!”라고 말합니다. 18 일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집에서 많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재봉틀이 계속 어려움을 준 이유도 많은 사람이 일에 동참케하고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어린이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message 로 받았습니다. 혼자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보다 행여 내이름이 높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여럿이 나누어서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증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겠지만 받을 은혜를 나누어 받는 기쁨도 체험 해 봅시다.

* 편집자 주: 옥합에서는 “칭찬합니다”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칭찬은 듣는 당사자도 좋고, 하는 사람도 좋고, 옆에서 듣는 사람에게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교우들나 이웃들에 대해 칭찬할만한 일이 있으면 원고를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선행이나 성품, 믿음들을 전교인과 함께 나누게 해주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10. 독자 투고: 인도를 다녀와서 - 김성덕 자매 (디모데)



지난 여름 3 개월 동안, 인도 중부 지방인 Madhya Pradesh 의 주도인 Bhopal 에 지내면서 인도 유니세프 현장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 인도 유니세프에서는 세계 석,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분야 별로 선별해서, 교육, 보건, 농업, 경제, 산림 관련 프로젝트를 맡겨서 case study 를 완성시키고 있었다. 나는 미네소타대학교에서 국제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배움의 기회였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인턴쉽을 지원하게 되었다. 다른 3 명(미국 1, 인도 2)의 인턴들과 함께, 부족 학생 (tribal students)들이 다니는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 탐사를 마친 후, 유니세프에 약 30 여장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인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힌두교, 사리, 카레의 나라라는 정도였다. 봄학기가 끝나자마자 인도로 가야 했기 때문에, 변변한 여행 책자도 준비 못하고 인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인도 여행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다.

첫날 시카고에서 뉴델리로 가는 직행 비행기가 런던에 불시착했다. 승객 한 명이 호흡 곤란으로 위험에 빠져 런던 공항에 들렀고, 저녁 8 시 30 분에 도착하기로 했던 비행기가 새벽 1 시가 넘어서 뉴델리에 도착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2 시가 넘었다. 원래는 한 방을 쓰기로 했던 또 다른 미국 인턴과 9 시 정도에 만나서, 함께 지낼 호텔로 가기로 했는데, 낭패였다. 공항에서 소개해준 오성 (五星) 호텔들은 너무 비싸서, 이성 (二星)짜리 호텔을 소개받았다. 호텔을 보고 나서 기절할뻔했다. 공포 영화에서 나올만한, 심란한 소음을 내며 움직이는 쇠창살의 엘리베이터, 심란할만큼 냄새 나는 방, 그리고 천장과 벽을 자유로이 돌아다니는 도마뱀. 그 호텔에 유일한 여성 숙박객은 나 혼자였다. 23 시간 동안의 비행에서 지친 심신이었지만,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샤워를 마친 후 잠을 청했지만 그마저도 안돼서, 아침 6 시 30 분까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 안전과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했다. 지금까지 내 생명과 안전을 위해 3 시간 이상 기도해 보기는 생전 처음이었던 것 같다.

다음날, 주린 배를 채우러 오후에 거리에 나갔는데, 거리 이름도 없고, 모두가 똑같이 보이는 복잡한 거리와, 국제여행객을 대상으로한 브로커, 릭샤맨(편집주: Rickshaw man, 인력거꾼)들의 속임수에 번번히 넘어가, 너무 속상했다. 약 4 일 동안 이런 사람들만 만나니 세상 사람들이 다 도둑놈으로 보였고, 미국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께 불평했다. 왜 이곳으로 오게끔 놔 두셨는지... 특히, 거리 곳곳에 있는 이방인들의 성전, 그들을 향한 사람들의 경배 소리, 불 피워진 향료, 틈만 있으면 속이려는 상인들과 릭샤맨들, 숨이 막혔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3 개월씩 살면서 일할 수 있을까 하며 좌절했다. 설상가상으로 Case study 를 감독하는 수퍼바이저 중에, 한 명이 정신분열증을 보이는 사람이었다. 언어적인 폭력과 임금 체불 등등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외부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현실이 참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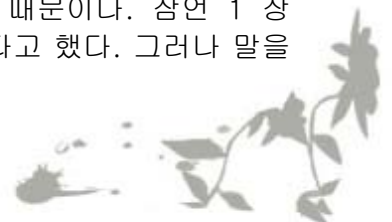
그 가운데서 위로가 된 것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교회였다. 숙소에서 오토릭샤를 타고 약 10 분 정도 가면 Assembly God of Church 교회가 있었다. 약 30 여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빈민 가정들이 대부분의 신도였고, 어린이들의 일요 성경학교도 있었다. 예배는 약 2 시간 동안 행해진다. 1 시간 동안 찬양을 드린 후, 설교 말씀이 1 시간 정도 이어진다. 모든 예배 순서가 인도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찬양인지 몰랐지만,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 인도인의 정서에 맞게 드럼으로 목사님과 한 초등학교 아이가 흥겹게 연주하고, 성도들이 한 시간 동안 서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춤춘다. 때로는 고갯짓으로, 열찬 박수로 찬양 드리는데 너무 아름다웠다.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자기네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며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 찬양 율동을 제외하고, 난 미국에서나 한국에선 춤추면서 예배 드리지 못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내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10 분만 서서 찬양 하는 것도 힘든데, 그들은 1 시간 내내 서서 찬양 드리면서도 힘든 표정은 찾아볼 수 없고, 땀방울이 맺힌 얼굴엔 미소가 번진다. 아멘...

약 90% 인도인이 이방신을 경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독교를 전해야 하는 큰 숙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남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와 선교사역이 필요함을 새삼 느꼈다. 모든 선교지가 힘들겠지만, 특히 인도는 가장 도전적인 선교지 중의 한 곳인 것 같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신앙을 위해 우리들의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더욱 풍성한 선교 기금이 보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인도에서 함께 일했던 인도 친구를 교회에 인도했지만, 하나님을 다른 이방신들과 같은 선상에서 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다. 유니세프에서 받은 월급으로, 인도 교회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했다. 주일 학교 학생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성경책과 관련 서적들을 구입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인도 인턴쉽을 통해 내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드린다. 짧다면 짧은 내 인생에 이렇게 크고, 다양한 역경을 주심에도, 나중에 그것들을 헤쳐 나가게 힘을 주신 분도 그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데, 그 분은 값없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가정, 건강, 학업, 그리고 신앙. 또한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에서 편하게 일했던 것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에서의 일문화, 계급 관계, 의사 소통을 터득하며 나의 편협함이 조금이나마 견혀진 느낌이다. 또한, 내 시야를 상대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배움을 주셨다. 인도에서의 3 개월은 내게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가장 값지고 잊을 수 없는 3 개월이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11. 독자 투고: 말은 아름답게 분명히 하라 - 최인영 권사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다. 말은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요 일을 만드는 힘이 된다. 말 한마디가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주는가 하면 실망과 다툼과 미움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지혜있는 사람은 돈과 시간을 아끼듯이 말도 아껴야 한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잠언 1 장 19 절에도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경우에 많이 하는 자는 경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말을



해야 할 경우에 하라고 했다(마 5:37).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경우에 맞는 말은 은쟁반에 황금 사과와 같다(잠 25:11)고 하였다.

말을 하기 전에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세가지를 생각하라는 교훈이 있다. 여기에 맞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다. 잠언은 의인이 입은 생명샘이 되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잠 10:11),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잠 15:1), 따뜻한 말은 생명의 나무가 되고 가시돋힌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잠 15:4)고 하였다. 우리들의 입은 날마다 아름다운 말이 흘러 나오는 생명샘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12. 독자 투고: 묵상 노트에서 - 어느 교우님 (바울 선교회)

나이 들어서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근래에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이런 시도와 묵상하는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이 지면을 빌어 나누고자 합니다. 묵상한 내용과 당시의 느낌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조잡하고 부끄러운 글이지만 아무 수정 없이 그대로 옮겨 적었고요, 일기 혹은 QT 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은 공통되는 부분도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8/2/06 Fragile life 이사야 64 장

6.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파함이 앞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요즘 부쩍 남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쓴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대하기가 더욱 껄끄럽고 또 냉소적으로 많은 이들을 판단하고 그런 생각이 항상 머리 속에서 맴도는 거 같다.

분명히 뭔가 나의 삶에서 문제가 생긴 거 같다. QT 를 너무 어수선하고 피곤한 상황에서 한동안 하지 못했고 전도의 생활도 그랬던 거 같다. 하지만 나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비참하고 깨지는 심령으로 항상 주님께 나아가서 매달리자. ‘주님 저를 잘 아시죠, 주님의 사랑 안에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세요, 불쌍한 저를…….’

8/15/06 예레미야 30

21.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므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매 순간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맘이 많은 미움과 증오로 질식할 것 같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제는 임시 group meeting 에서 방사능 사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격론이 있었다. 부분적인 잘못은 인정하지만 글썄, 상당한 부분에서 기분이 안 좋았다. 전날에는 잠도 잘 못 자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기 위해……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기억하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죽지 않을 정도의 연단으로 나를 단련하시면서…… 혹은 질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면서…… 내일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

8/22/06 예레미야 42

6.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바벨론 정복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다랗가 암살된 후 어쩔 줄 몰라 예레미야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 나아온다. 그들은 항상 주위의 정세와 자기들의 판단을 의지하다 결국은 파멸에 이르렀다. 지금 나는 얼마나 많이 내 생각과 판단에 휩싸여 있는가? 아무리 잘나도 티끌 같은 인생,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 아닌가? 잘될 때 교만하지 않기 위해 고난을 통해 마음을 낮추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합니다.

8/26/06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는 만큼 너도 그렇게 하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도 얼마나 뻔뻔한 인간인가. 죄짓고 실수하고 돌아오고 다시 구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런 놈으로 치부해 버리시는 게 아니라 끊임 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만나 주신다. 회복과 마음의 평안을 경험한 소중한 어제 하루였다.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9/20/06 고린도 후서 1

9.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기시는 말씀이다. 확실히 여유가 있어질수록 나에게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마음 가운데 그 분을 찾기를 원하신다. 나도 사실 마음이 가난하면 기분이 너무 처지는 것 같아 그 느낌이 싫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그런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겠다. 한동안 있었던 그런 일련의 일들로 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아침에 첫째 학교 보내기 위해 옷을 갈아 입히는데 너무나 부쩍 커버렸다는 느낌을 받았다. 둘째는 너무 쉬웠다가 요즘 주위 환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때를 쓰기 시작한다.

10/18/06

지금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을 느낀다. 창 틈으로 선선하게 들어오는 바람, 지저귀는 새 소리들, 하늘을 가득 덮고 있는 구름, 대기에 가득한 기분 좋은 눅눅함, 붉게 물들어가는 나뭇잎들, 조화롭게 서있는 내가 사는 이 아파트. 이렇게 마음을 열고 느낄 때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나의 모든 죄를 잊으신 주님. 한번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것을 사하신 예수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13. 독자 투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산제사 - 이현숙 집사님

로마서 12 장 1 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예배니라.

“아버지 저와 엘리야 드보라의 오늘 하루를 아버지 손에 올려 드립니다.



저희들의 하루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산 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호흡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말과 행동이 향기 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수업 중 학생들이 혹시 말을 듣지 않을 때, 제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소외된 아이들, 문제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부족한
언어로 인하여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 혀를 주장하여 주시고 수업
중에 말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 천군천사로 돕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저와 엘리야 드보라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출근 길에 하루도 쉬지 않고 드리는 나의 기도이다. 나는 만 4
년째유치원부터 8 학년의 학생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에서 교사로서 일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나는 세계 역사, 지리, 그리고 수학(기하)을 가르친다. 이는 생각해 볼
때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생각된다.

나의 영어가 부족하고 서툰데도 불구하고 점심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서로 나와 함께
밥을 먹겠다고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을 보며 가끔은 눈시울이 적셔지기도 한다. 식사
전에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처음에는 이상한 눈으로 그리고 호기심으로
워하느냐고 묻던 아이들이 지금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다.
매일 점심 시간이 다가오면 나는 남몰래 가슴이 설레인다. 오늘은 누가 기도를 할까
하고... 인도에서 온 사리카는 나는 종교가 없지만, 벤자민은 토요일마다 공회에 나가는
철저한 정통 유대인이지만 단지 나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서 기꺼이 눈을 감고 손을
잡고 식사 기도를 한다.

수업 중 발음이 매끄럽지 않은 단어가 종종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이들에게 부탁을
한다. 이런 종류의 단어는 참 발음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을 한다. 수업 후에 아이들은 내게 와서 이야기 해준다. 그럼 그단어를 쓰지
말고 이 단어로 바꿔서 사용하면 어떨겠냐고... 또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의 말을 해준다.

하지만 워낙 짓궂은 남자녀석들도 많다보니 항상 그렇게 늘 좋을 수 만은 없다.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할 때도 경험한 것인데, 아이들은 누군가를 왕따를 시켜 놓고
선생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선생님을 테스트하기도 한다. 때로는 말을 안듣고
수업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 아이들이 있기도 하다.

그런 아이들에게 나는 이런 질문을 한다. 너의 그런 행동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가 그러든 말든 못본 척 무시하는 것(보통 미국 선생님들은
이 방법을 쓴다)이고 다른 하나는 야단을 치는 것인데 너는 어떤 것을 원하느냐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후자를 택한다. 야단 맞을지언정 무시 당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그대신 자기한테 조용히 말해달라고 한다. 그럼 고치겠다고...다시는
안그러겠다고...이런 아이들은 "너를 믿는다"는 말 한 마디에 무척 감격한다. 늘
무시당하고 부모님들이 자주 학교에 불려오는 말썽장이라서 본인 스스로도 아무도

자신을 믿어 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터라 좋은 말로 다독거리고 “너를 믿는다”는 말을 부드럽게 말을 해주면 얼마가지 않아 태도가 돌변하게 된다. 교사인 내 옆을 맴돌며 위로받고 싶어하기도 한다. 이런 아이들은 나의 기도 공책에 이름이 올려지고 매일 매일 기도와 함께 나는 이렇게 하나씩 나의 친구로 만들어 간다.

또 하나 자주 사용하는 것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의지”라는 것을 주셨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가 선택을 할수 있단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으로…근데 이 선택은 너희들이 순간순간 쉬지 않고 해야하는 것이란다. 어느 곳에 있던지 무슨 일을 하던지… 하나는 Aroma 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Stinky 가 되는 것이란다. 이 말을 할 때마다 난 아이들의 진지한 눈빛을 본다.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할수 있다는 “의지”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서 말을 한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 본다 Aroma 의미는? Stinky 의 의미는?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난 가급적이면 아이들에게 말을 하게 한다. 아이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이고 또 하나는 부족한 영어 때문이기도….

아이들의 대답은? 당연히…. 나부터도….나도 Aroma 가 되고 싶다. 매일 매일 쉬지 않고 거의 잠꼬대처럼 주문을 외우듯이….내 아이들 엘리야, 드보라도…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내 아이들도…향기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아름답게 향기 나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나는 향기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살고 싶다.

우리반에 6학년 윌리엄이라는 아이가 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엉뚱한 소리로 탄지를 놓고 가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 ”미쓰 그레이! 나는 유대인인데 학교에서 그렇게 특정 종교 이야기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정색을 하고 말하던 그 아이는 지금은 가장 내 가까이에서 점심 시간만 되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싶어하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윌리엄은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나를 놀려 주려고 그런 것이기는 하였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아버지!
나를 부르신 아버지!
나를 나되게 하신 아버지!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위로 되시며,나의 기쁨 되시는 나의 아버지!
정말 보잘 것 없는 저를 택하여 주시고,
내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게 하시며,
매일 매일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가슴이 저리도록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내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나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의 호흡이 찬송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시며 나의 삶이 향기로운 산제사가 되기를 소원하며….



14. 독자 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 박은영 교수님

남편의 유학으로 이곳 미네소타에 온지 약 5개월이 되어갑니다. 아직은 한국에서처럼 이른 아침, 출근을 준비하고 바쁘게 직장에서 근무하던 생활이 일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런 한국에서의 생활들을 자면서 꿈으로 꾸기도 한답니다.

흔히들 병설유치원이라고 알고 있는 국공립유치원에서 근무했던 저는 꿈에서 어느 때와 같이 초등학교 교문을 들어서 유치원 교실이 있는 입구로 운동장을 지나 걸어가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나서, 하루 수업 계획을 참고하며 수업 자료를 챙겨 교실로 들어서면 이내 곧 아이들이 등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그리 즐겁고 좋은지 복도 끝에서부터 교실까지 “다다닥” 뛰어오는 소리, 까랑까랑한 아이들의 인사 소리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무엇이 불만인지 오늘도, 종민(가명입니다.)이는 가방을 축 늘어지게 메고 바닥을 보며 교실로 들어섭니다. 분명 오늘도 한건 크게 할 것 같은 안 좋은 조짐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종민이는 유명합니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앞 문방구 아저씨한테도 찍힌(?)... 종민이의 작년 담임선생님은 저에게 학기 초에 종민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며 일년간 고생하라고 하셨습니다.

빠른 눈치(일단 주위를 살핀 후 선생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잼싸고 강한 손놀림(아이의 주먹질이라고 하기엔 기술적인 각도로 친구의 얼굴이나 배를 가속을 가해 강타한다.), 거친 말투(TV에서 “빠이~”라고 처리되는 그 말들), 정확한 상황 판단력(혹이라고 선생님이 딱 제대로 본 날은 자기가 피해자인양 울며 먼저 하소연하기 시작한다.), 잘못에 대한 진실한 회개와 일시적인 갱신의 삶(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많은 눈물과 함께 친구에게 사과하며 끌어안고 같이 울기도 한다.), 그러나 갈수록 기대와는 어긋나, 더 강한 강도로 큰 사고를 치는..... 그 이름 종민이.

종민이 부모님과 거의 매일 전화로 이어지는 상담은 기본, 피해 아이들의 신체적 상처 수습과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종민이의 행동에 대한 사과..... 정말 괴롭고 싫었습니다. 한날은 자면서 잠꼬대를 했었는지, 남편이 제가 자면서 어떤 남자 이름을 성난 목소리로 크게 불렀다면 “종민이가 누구고? 전에 사귀던 남자가? 꿈에서 싸웠나?”하고 추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의식중에도 나를 괴롭히는 녀석. 부부사이를 갈라놓기까지.....^^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친구를 때리든지, 욕을 하든지, 침을 뱉든지, 심지어 물건을 훔치든지. 갈수록 더해가는 종민이의 행동에 저 역시 강하게 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타임아웃 기법(정적강화로부터 기회박탈: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물건, 상황으로부터 잘못에 대한 댓가로 격리되는), 반의자 기법(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가짐:아이들은 조용히, 혼자 있는 것 자체가 고문이죠.) 이런 것들은 너무 신사적인 것 같아 먹혀들지가 않았습니다.

하루는 종민이가 생일 맞은 친구가 다른 친구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다 발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씩 아이들을 혼낼 때마다 들먹였던 경찰아저씨를 좀 더 팔아(?) 남편을 경찰아저씨로 위장해 종민이와 통화를 하게 하였습니다. 종민이는 엉엉울면서 곧 데리러 온다는 경찰아저씨에게 “오지마세요. 다음부터 안

그렇게요.”그러면서 한손으로는 전화기를 잡고 두발을 폴짝폴짝 뛰면서 운적도 있습니다. 한 이틀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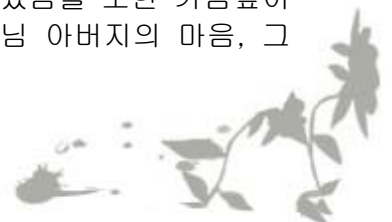
그날은 정말 짧은 저의 교직생활에 획을 긋는 날이 되었습니다. 종민이가 문방구 아저씨의 손에 붙들려 교실로 왔습니다. 물건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일단 아저씨와 대화를 나눈 후 아저씨가 가신 뒤, 종민이를 조용히 쳐다봤습니다. 종민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곧 닥칠 야단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녀석의 얼굴은 하얗게 변해있었고 두 손을 몹시도 바쁘게 만지막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신의 반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만 오줌을 싸고 만 것입니다. 조용히 여벌의 옷들을 챙겨 녀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씻긴 후, 옷을 갈아 입혔습니다. 아무 말 없는 저를 여전히 초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없는 교실로 종민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웬일인지 그날은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종민이가 눈물 흘리는 저를 걱정스러운듯 쳐다보았습니다.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종민이를 끌어안고는 잠시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빠의 외도로 인해 엄마를 잃은 아이, 그리고 동생을 가진 새엄마와의 만남. 아이는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을 향해 사랑을 갈구하며 자신을 주목해 주길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간 밀려오는 여러 감정속에서 종민이를 더욱 강하게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종민이게 “선생님은 교회 다니는데, 오늘은 종민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는데 같이 기도할래?”하고 물었습니다. 종민이는 “나도 교회다녀요. 저번에 한번 가봤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은 계속 흘러 내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민이가 문방구에서 물건을 마음대로 가지고 왔어요. 나쁜 일인 줄 알았지만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문방구 아저씨가 못 봤어도 다 알 수 있죠? 앞으로는 몰래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또 친구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욕하고 칭받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종민이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종민이를 사랑하지만 종민이 마음을 제일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종민이를 좋아하시고 많이많이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종민이가 친구들에게 부드러워진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종민이가요... 어찌구 저찌구...” 친구들이 알려주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 녀석과의 남은 학기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몸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끼는 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큰 과제 앞에서 다시금 그 분의 사랑 속에 저 자신부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부모라는 자리에 설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민이를 떠올리며 좋은 행동, 그릇된 행동에 대한 단순한 지도로서의 선생이 아닌, 행동 이면의 마음을 읽고 진정한 사랑으로 위하며 가슴 아파 해주는 교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쿼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음을 또한 가슴깊이 새겨봅니다. 바로 내게는 그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엄마가 되며 또 다시 교육이 현장에 설 그 날을 그려보며, 두렵고 무거운 자리 앞에 한 걸음 내딛어 봅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 49:15)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몽당연필, “행복한 임신 아름다운 태교” 중에서)

15. 독자 투고: 인생의 세번째 단계 / 정은옥 교수님

얼마전 이종형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는 2007 년 시무 시작 직분자 교육에 참석했다. 인생의 세단계라는 도표를 놓고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하는 시간이 있었다. 한국에 살던 25 년, 미국에 와서 25 년이 처음 두 단계라면 이제 세번째 단계에 접어든 나의 도표에 대해 성찰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나의 도표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던 25 년, 그리고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와 함께한 25 년, 이제는 고아가 된 새로운 꼭지점에 도달한 그림으로 표현될수도 있겠고, 교회에 전혀 안다니던 한국에서의 생활과 교회에 다닌 미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앞으로 생활로도 표현할수 있다.

육남매중 넷째로 태어난 나는 공부하라는 소리도 듣지 않고 컸다. 우리 어머니는 큰언니와 오빠에게 신경을 많이 쓰셨던것 같다. 어릴 때 공부는 커녕 친구들과 놀다 집에 가기 일쑤였고 내 실력은 동화책에서가 아니라 만화를 보며 쌓은거라 할 정도이고, 국어에 문법이 있다는 것도 영어를 배우며 알았다.

학창 시절을 더듬어 보면 우리 학년이 처음으로 추천에 의해 중학교에 갔고, 고등학교 입시는 그때도 경쟁이 심해서 1, 2 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좌우되기도 했다. 체력장이라는게 있었는데 달리기를 못해도 입학 시험에 떨어질까 걱정을 해야할 정도였다.

우리 또래인 사람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마치 전쟁이 바로 날 것처럼 우리는 교련 훈련을 자주 했으니 주황과 빨강 깃발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나 밖에 없었을 것 같다. 고등학교 입시에서 경계 경보와 공습 경보 깃발 색을 몰라 입시에서 떨어진 (이건은 완전히 내 상상임) 것은 평생 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우리 때만 이차로 뽑은 수도 여고에 진학해서도 국어 선생님이 일본 여자 처럼 생겼고 입술이 너무 빨갈고 진해 쥐잡아 먹은것 같다고 해서 국어는 공부도 하기 싫었다. 대학도 국어 때문에 간신히 (우리 때 과목당 적어도 40 점은 받아야 하는 기준이 있었다) 들어갔다. 국어를 못한 것은 미국으로 와 산다고 피해지는 것 같지는 않다. Tornado Watch 와 Warning 으로 drill 을 하면 지금도 바로 경보와 공보를 구분 못하던 때가 생각난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 했으니 어설픈 믿음 생활 이십 여년이다. 80 년대 초에 우리는 Texas 의 College Station 에 살았는데 그당시 같이 교회 다니던 분들 중에 학위를 마치고 다시 신학교에 다니고 목사님이 되신 분도 열

명이 넘으니 얼마나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많았는지 모른다. 난 그동안 교회는 꾸준히 다녔으나 간헐적으로 성경 공부에 드나들었고 꾸준히 참석한 적은 없는 것 같고, 못한다고 도전을 받지도 않은 것 같다. 어릴 때 국어와 한자를 못해 주눅이 들은 나는 성경을 읽어도 감을 못잡을 때가 많다.

지난 가을에 유민수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성경공부에 (창세기를 공부함) 몇 번 참석했었다. 내가 처음 참석한 날은 유난히도 햇살이 호수에 예쁘게 반짝이던 날이었다. 그날 새로운 것은 성경 공부가 내가 알아들을 정도로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 집사님은 내가 참석을 못하거나 이해 못하는 것이 있으면 따로 시간을 내어 알려주시겠다는 것이 아닌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 짝이 없다.

인생의 세번째 단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성경을 읽는 일에도 공을 들여봐야겠다.

16. 다움 / 이종한 집사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창 3:9)

《논어(論語)·안연(顔淵)》편에 이런 말이 나온다.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君君, 臣臣, 父父, 子子.) 이는 춘추시대 제(齊)나라 군주인 경공(景公)이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공자(孔子: 551-479 B.C.)가 대답하여 한 말로, 정치의 요체는 군신과 부자가 각자 자기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물론 이는 개인의 역할을 사회적 통념에 의해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자아실현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인륜이 허물어지고 사회적 제반 관계가 이완된 혼탁한 현 세상에서, 이 말은 가장 기본적인 자신의 직분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실제 공자가 이 말을 한 때도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이 하극상이 난무하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 해야 할 직분에 충실하다면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는가?

이 글귀가 군신과 부자라는 특정 관계 속에서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인간 관계나 사회 조직과 기구 등에 두루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믿음의 식구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영적 존재로서의 고귀성과 범죄한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라는 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독교인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다. 관계의 단절은 위치 이탈에서 연유한다.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사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면서부터 인간의 위치 이탈은 시작되었다. 그 아들 가인도 동생 아벨을 쳐죽인 뒤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여호와와의 물음에 알지 못한다며 아우를 지키는 것이 자기 소임이냐고 항변한다.

자기 분수와 위치를 망각한 인간들은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 그가 굴린 잔머리는 아들 이삭이 똑 그대로 답습한다. 소위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핍박하던 애굽 사람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며 출애굽할 수 있게 인도하셨건만, 광야에서 목마르다 원망하고 배고프다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땅에서 배불리 먹다가 죽는 것이 낫다고 투정부리는가하면, 여호와와 모든 말씀과 율례를 준행하겠다고 다짐해놓고서는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다. 정말 배은망덕하고 잘도 잊어먹는다. 조금만 불리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지난 시절의 은공은 깡그리 망각하고 자기에겐 편하고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와신상당(臥薪嘗膽)이라는 고사가 생각난다. 이 말은 중국의 위대한 역사가인 사마천(司馬遷:145?-86?B.C.)의 《사기(史記)·월왕구천세가(越王勾踐世家)》에 처음 나오는 말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참고 견딘다는 비유로 쓰인다. 이 고사는 중국 춘추시대에 원수지간이었던 이웃한 오월(吳越) 두 나라 사이에 얽힌 우리에게 널리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월나라 왕 구천(勾踐)은 오나라 왕 부차(夫差)와의 전투에서 크게 패한 뒤 회계산(會稽山)에서 투항하여 볼모로 잡혀 노예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부차의 인분까지 맛보며 그의 환심을 산 뒤, 살아 돌아와서는 그 패배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까칠까칠한 땔나무 위에서 잠자고’(臥薪) ‘쓰디쓴 쓸개를 맛보며’(嘗膽) 절치부심하여 마침내 회계산의 수치를 설욕하고 원수를 갚았다는 게 주된 줄거리이다. ‘와신(臥薪)’은 월나라와의 전투에서 죽은 부왕인 합려(闔閭)의 원수를 갚으려고 부차가 자신을 독려하기 위해 한 일로 기록한 책도 있다.

그런데 이 고사에 얽힌 스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수를 갚기 위해 괴롭고 힘든 일을 참고 견딘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보다는, 사람이란 시간이 흐르면 잘 잊어먹는 나약한 존재라는 의미가 더 짙게 다가온다. 세월이 흐르면 복수의 칼날도 무뎌지듯이, 안락한 침대와 맛있는 음식에 탐닉하여 배에 기름기가 끼기 시작하면 예전의 치욕도 차츰차츰 가물거리고 현실에 안주하기 십상이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것처럼 지난 시절의 고난을 쉽게 잊어먹는 것이 인간 실존의 여실한 모습이다. 인간의 이런 나약한 속성을 꿰뚫어보고 깨어 있기 위해 ‘와신상당’의 대처 방법을 택한 구천은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다.

상고시대 은(殷)나라의 성군인 탕(湯)임금은 자기 목욕 그릇에 이런 말을 새겨두고 연약하고 나태해지려는 자신을 다잡고 다잡았다. “진실로 오늘 하루를 새롭게 하였거든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날로 새로워질지니라.”(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사서(四書)’의 하나인 《대학(大學)》에 나오는 이 말은 본래 날마다 몸의 때를 씻어 새롭게 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도덕 수련과 같은 정신적 세례까지를 포함한다. 부단한 자기 단련 없이 잠시라도 게을리 하면 세상의 온갖 진애가 몸에 쌓인다. 매일 씻지 않고 방치하면 그런 상태에 길들고 적응하여 더러운 줄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만다. 어쩌다 한두 번으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여 늘 깨어 있도록 해야 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솔로몬도 만년에 가서는 타락의 길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니, 정녕 우리 인간은 가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참 행운아들이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숨은 손길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더 큰 가슴으로 감싸 안으신다. 우리가 회심하고 본래 위치로 돌아오기만 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바로 열린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예수님께서 잡혀 가시던 날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부탁에도 아랑곳없이 잠자기에 바쁘고, 의리 없이 예수님을 세 번 씩이나 부인한 촛뜨기 졸장부 베드로가 180도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던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뒤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한 것이다. 우리의 선택은 명명백백해진다. 자신의 지혜와 명철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을 간구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자기 위치를 이탈하게 되면,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한 뒤에 천명을 기다린다’는 이른바 인간 중심적인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으로는 안 된다. ‘대천명’하고서 ‘진인사’해야 한다.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할 일을 극진히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이다.

우리가 깨어서 본 궤도로 돌아와 자기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며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제 자리를 지키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불품없는 사람을 변화시켜 대업을 거뜬히 감당하게 축복하신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창 46:2)라고 대답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출 3:4)라고 한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 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대명을 완수하지 않았던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무개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며, 우리를 찾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부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기 자리에 서 있는지 점검해볼 때이다. 목사님이 어떨고 어느 장로와 어느 집사가 어떨고 어느 교인이 어떨고 교회가 어떨고 하며 다른 사람이나 교회 타령을 하기보다는, 골방으로 돌아가 주님과 일대일로 면대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고독한 자기 성찰 위에서 우리 교인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대로 자기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때,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가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그때 우리 교인과 교회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칭찬받아 마땅하리라!

저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제가 당신의 자녀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힘주시옵소서!

17. 독자 투고: 나는 영원한 찬양대원 / 이만희 권사님



나는 초등학교 4 학년부터 “유년 주일 학교 성가대원”이었다. 학교가 끝나면 신나게 교회로 달려간다. 따뜻한 햇빛이 조그마한 시골 교회 오르간(그때는 풍금이라 불렀다) 주위를 따뜻하게 감쌀 때, 우리는 연습을 시작해서 해가 서산을 넘어갈 때 쯤, 웅기종기 모여 재잘거리며 집으로 돌아간다. 붉으스레한 햇빛이 서산을 물들일 즈음 자그마한 초가집 지붕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우리 “유년 주일 학교 성가대”를 가르치시던 남 선생님은 대학생이셨는데 음성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음악을 무척 좋아하셔서 음악에 대한 지식이 많으셨다. 오르간 반주를 하셨던 여 선생님은 공부는 많이 안하셨지만 예쁘고, 양전하고, 여성다운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두분은 연애(교제)를 하셨는데 남자 집에서 몹시 반대를 하셔서 부모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셋방에서 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아무리 숙제가 많고 시험이 내일 있을지라도 성가대 연습과 찬양대 서는 일은 빠지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이 커서가 아니고 찬송가를 마음껏 부르고 나면 새 힘이 솟아나 짧은 시간에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편”이란 히브리 말로 “찬양”이란 뜻이다. 다윗왕은 레위 족속 중에서 노래하는 자 4,000 명을 뽑아 세웠다는 이야기가 구약에 나온다. 솔로몬 왕이 자기만 화려한 궁전에 머무르는 것을 마음 아파하여 하나님을 모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완성하여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제금과 비파와 수금과 나팔 부는 제사장 120 명과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발하여 여화왕을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여호와와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역대하 5 장에 기록되어 있다.

나의 삶을 뒤돌아 보면, 봄날처럼 화사하고 새 생명이 약동하던 30 대, 여름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나의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철사이 없이 바쁘게 뛰어다니던 40 대, 가을처럼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어 우리 가족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무한히 노력하던 50 대, 그리고 60 대를 지나왔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겨울철을 맞아 남은 여생을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봄날처럼 기쁘고 즐겁게 살고자 한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 입구에 Drive way 를 따라 앞이 무성한 사철나무가 줄지어 서있다. 봄, 여름, 가을에는 다른 꽃들과 함께 그늘을 지어, 오고가는 사람들을 잠시나마 시원하게 해준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다른 꽃들은 다 시들고 그 뾰뾰한 사철나무 앞속에 많은 새들이 숨어 바람을 피하여 겨울을 지나게 된다. 겨울이지만 좀 따뜻한 날에는 “푸덕푸덕”하는 날개 소리와 나즈막하게 재잘거리는 소리 뿐인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날개 부딪히는 소리와 새들의 “ 짹짹 ” 하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혹시 목청이 터지거나 앓을까 염려스럽기까지 하다. 몹시 추울 때는 서로 날개를 부딪히며 크게 입을 벌려 소리를 내면 몸의 온도가 높아지고 추위를 견디기 쉽기 때문이라.

이 현상을 해마다 보아 오며 나는 배우고 또 마음을 다져 먹는다. 나에게 미네소타의 겨울처럼 혹독한 추위같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 목이 터져라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응답해 주시고 품 안에 고히 품어 주옵소서.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왔느냐?”고 물으실 때, 저는 서슴치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목소리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다 왔습니다.”라고 대답하리라. 내 마음의 한 노래, 언제 불러도 감사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찬송이 있는 한 나는 행복하다.

나는 내년(2007 년)에 은퇴하려고 한다. 수십 년 하던 일을 그만 두려고 하니 시원섭섭하지만 나에게는 은퇴가 없는 영원한 job 이 있다. 내 목소리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자랑스러운 성가대원 영원한 찬양대원이다.

* 경상도 말로 하는 찬송 : 360 장

예수 나를 오라카네
예수 나를 오라카네
갯세마네 동산꺼지
니캉 내캉
내캉 니캉 갈라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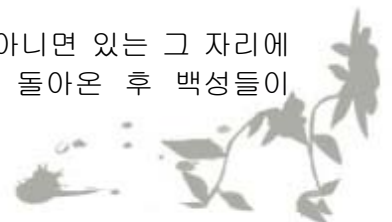
18. 독자 투고: 다시 읽은 민수기 / 김현준 교우님 (바울)

민수기는 저에게 다른 말씀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 교만함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았고 그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0년 어느 날 저는 설교를 통해 성경의 인물 중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모세의 교만과 불신앙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심히 꾸짖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에서 제일 온유하다고 칭찬 듣고 또한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고 말씀하신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라 저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만함을 싫어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교만이고 왜 그것을 그리 싫어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사랑하시던 모세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백성을 패역한 무리라고 평가하고 욕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자신이 하는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이 물을 낸다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것, 그리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또한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내려친 이 모든 것이 큰 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한 편으로 모세의 실수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짐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이 세 가지 실수가 인생을 살아가며 너무나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큰 의미를 지닌 민수기를 최근 담임 목사님의 수요 성경공부를 통해 다시 배웠고 또 한번 읽었습니다. 집사 임직을 앞두고 읽은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를 갖고 있었고, 읽은 후 세 장면이 제 머리 속에 남았습니다. 첫째 장면은 모세가 회막을 다 세우고 난 후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12월에 걸쳐 각 지파의 족장들이 동일한 예물 - 은반, 은바리, 금술가락, 수송아지, 숫양, 숫염소 -을 드리는 것이 7장에 열 두 번 반복 기술됩니다. 각 지파의 크고 적음이, 풍부와 빈곤의 정도가 분명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저는 교회에서 각자가 담당해야 하는 부담의 몫이 나의 가진 것과 나의 사정에 근거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학생의 신분이라는 것, 가진 것이 적다는 것, 제작자 중 어리다는 것을 은신처 삼으려 했던 저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큰 도전이고 또한 경고였습니다.

둘째 장면은 크고 힘들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 앞에서 아니면 있는 그 자리에 즉각 앞드리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열 두 정탐이 가나안에서 돌아온 후 백성들이



실망하여 애굽에 돌아가고자 할 때도, 고라와 다단이 반역하여 도전할 때도, 가데스에서 백성이 물이 없어 심히 원망을 할 때도 모세의 첫 반응은 옆드림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그럴 수 있는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크고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우선 찾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가,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관심이었었고 이것은 교회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달린 큰 일 앞에서 사람을 찾지도, 누구와 상의하거나 변론하지도 않고 우선 하나님의 발 앞에, 하나님의 전에 옆드리며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 올바른 길이고 우선된 것임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셋째 장면은 불평과 불만, 원망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재앙으로 생을 마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끝에서 악한 말로 원망이 나왔을 때에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을 때에도, 열 두 정탐이 돌아온 후 열 정탐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며 백성들을 오도했을 때에도, 고라와 다단이 반역하며 도전했을 때에도, 고라와 다단을 죽은 후 백성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여 원망을 했을 때에도…… 이 모든 경우에 있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원망을 하고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명에 죽지 못하고 재앙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저는 불평과 불만, 원망과 도전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은 결국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내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며, 내가 보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임직을 앞두고 다시 읽은 민수기에서 저는 이 세 교훈을 얻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것에는 분명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있다고 믿고 기대합니다. 민수기를 통해 얻은 이 세 교훈을 맘 깊이 간직하며 성실히 일하는 3년이기를 기도합니다.

19. 독자 투고: 안 장로님을 생각하며 / 전성균 장로님

지난 해 성탄 전후 주간을 Hawaii 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Hawaii 는 오래 전에 재미 한인 의사회가 주선하여 한국을 방문할 때 Honolulu 의 Waikiki 해변에서 이틀을 묵으면서 유명한 Hula 댄스를 감상한 기억이 어슴푸레 남아있을 뿐이다. Hawaii 에 머물면서 최근에 소천하신 안 장로님 생각을 했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중국의 학회에 참석하고 오는 길에 들린 한국에서 들었고 장례예배에도 본의 아니게 참석하지 못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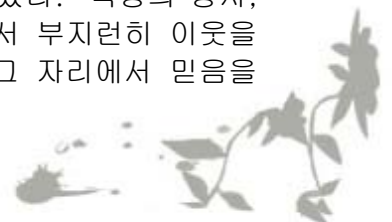
안 장로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셨다. 한 때 안 장로님의 부모님과 동생이신 안 대현 장로님이 이 고장에서 함께 사시었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어 자주 마나고 친교를 가졌었다. 특히 그 어머니의 신앙은 대단하셨고 자식들을 믿음 안에서 훌륭히 키우셨다. 평안도 사투리를 쓰시며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인자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마지해 주시던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한국의 어느 양반 댁 규수보다도 양전하신 며느님 Betty 여사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 더욱 착하게 보인다고 늘 칭찬하시었던 것도 기억한다. 안 장로님은 좋은 신앙으로 평생을 사셨고 미국 교회의 시무장로로서 오래 동안 수고하셨고 말년에는 미네아폴리스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인 Westminster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계속하셨다. 안 장로님과는 오랜 세월을 이

고장에서 가까운 사이로 지냈고 나는 그를 형님이라고 불렀고 그는 나를 동생처럼 대해 주셨다. 이따금 만나서 점심을 함께 했고 농을 좋아하셨기에 만나는 즉시 그 동안에 수집한 새로운 농담들을 피자 털어놓고 한바탕 웃으며 식사를 시작했다. 수의대와 농과대학에 한국서 유학 온 대학원생들에게 언제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베푸시어 유학 온 후 첫 몇 주간을 안 장로님 댁에서 지난 학생이 수두룩하다. 우리도 유학생 치다꺼리를 제법한 사람들 중에 들어가지만 집에서 숙식을 하게 한 사람의 수는 극히 적었다. 안 장로님은 자기 집을 흔쾌히 개방하시어 유학생들이 하숙을 구해서 나가기 전의 기간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하셨다. 이걸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 일을 처리해 가시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감명을 받았었다.

그는 서울대 약대와 미네소타의 명문 Macalester 대학을 졸업하신 후 영양학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셨고 그 연구실에서 공부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말은 바 일에 충실하셨다. 은퇴하신 후에는 미국 국무성 통역 일을 맡아 하셨다. 국무성에서 미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초청한 한국의 저명인사들과 미대륙을 순회하는 업무였고 기간은 보통 한 달이었다. 여행을 다녀오신 후 우리는 자주 만나서 점심을 같이 했고 함께 다녀온 한국의 저명인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언젠가는 은퇴 후의 직종으로는 해볼 만한 일이라고 이 사람에게도 그 자격을 따 놓으라고 권유하시기도 했다. 그 외에도 법정 통역 일을 맡으셔서 이따금 점심을 같이 할 때 낯선 사람이 와서 인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이 법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안 장로님은 은퇴하신 후에도 부지런한 삶을 이어가신 분이다. 그의 또 하나의 재주는 타고나신 고운 음성이었다. 교회성가대 뿐 아니라 미네소타 한인 합창단의 주요 멤버로서 활약하셨고 결혼식이나 장례 예배에 초청되어 축하와 조가를 불러주시어 많은 감동을 주셨다. 지난 8 월에 S 장로님께서 대학에서 35 년간의 교수직을 은퇴하는 만찬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Edelweis 를 불러주셔서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주셨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고장에서 착한 도리를 잘 하기로 이름난 K 교수가 안 장로님과 가까이 지나는 몇 사람을 불러서 노래잔치를 베풀었는데 우리도 초대를 받았다. 그 날 밤 우리는 안 장로님 내외분을 모시고 가고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중책을 맡았다. 가는 도중에도 기분이 상쾌하시어 자기의 삶이 얼마나 보람찼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거듭 강조하시는 걸 듣고 우리도 그 말씀에 동의하였고 삶의 한 순간 한 순간을 믿음을 가지고 충실하게 그리고 맑고 밝은 마음으로 사신 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휴가는 첩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서 해방되어 아무런 사간의 제약 없이 어쩌면 제멋대로 살아도 탓할 사람이 없는 기간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평소에 못 읽은 책도 몇 권 가지고 갔다. 그러나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곳에 온 사람들을 관찰하며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산책하는 일에 골몰하여 몇 줄 읽지도 못했다. 그러나 자기의 삶과 지난날에 일어났던 일의 뜻을 조용히 되새기는 시간은 가질 수 있었다. 안 장로님의 서거가 최근에 일어났던 가장 큰 일의 하나였다. 휴가를 보내면서 그분의 잘 사신 삶을 되돌아보며 그 분이 남기신 향기를 마시며 그분의 영상을 마음속에 심어보았다.

금년 들어서 가까이 지나던 사람들 가운데 세 사람이 이 땅을 떠났다. 직장의 상사, 사돈 영감, 그리고 형님 안 장로이시다. 그들 모두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이웃을 위해서 애쓰다가 훌쩍 우리 곁을 떠나셨다.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 떠나면 그는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그 무엇을 남기고 떠난다.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이 적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삶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할 몸인 것을 실감한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알뜰히 보살피며 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값지고 보람 있고 향내 나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해 본 좋은 휴가였다.

20. 독자 투고: 파인 릿쥐 散見/ 이종한

1. 맨더슨 (Manderson)

우리가 맨더슨에 도착한 것은 어느 무더운 여름날의 오후였다. 미네아폴리스에서 이곳까지는 625 마일이 된다고 한다. 버스와 두 미니 밴에 나누어 우리 선교단이 맨더슨의 명소(名所) 핑키스 상점 앞에 정차하여 미리 예약되었던 곳에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머문 것이다. 이곳 맨더슨은 우리 교회의 영어권이 십여 성당을 선교지로 삼아 사역하는 곳이고 우리 교회가 이르는바 파인 릿쥐 선교의 본 사역지이다. 사실, 파인 릿쥐는 여기서 한 25 마일 남남서쪽에 있는 작은 도시이다. 도시이기도 하고, 또 이 주변의 약 3,500 평방 마일(구 천 평방 km)을 구획한 인디언 보호구역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보호구역은 남쪽으로는 네브래스카 주에 연접하고, 나머지는 남 데코타 주에 연접한 지역으로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미국 내의 인디언 보호구역 중 제 팔위의 크기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한다. (어느 정보는 제 2 위 라고 한 것도 보았다.) 또 이 보호구역은 델라웨어 주와 로드 아일랜드 주를 합친 면적보다도 더 큰 지역이다. 백인들이 라코타 인디언들을 무단히 살육(殺戮)한 씻을 수 없는 오명(汚名)의 역사를 남긴 운달 니(Wounded Knee)는 맨더슨에서는 불과 팔마일 남짓 남남동쪽에 있는 작은 취락(聚落)이다.

2.

파인 릿쥐 인디언 보호구역의 취업 상태는 85 퍼센트가 무직이며, 연방 정부에서 규정하는 빈한(貧寒) 기준에 의하면 이 보호구역의 97 퍼센트가 빈한 기준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숫자는 미국 전체의 12.7 퍼센트가 빈한자로 집계되는 것에 비교가 된다. 평균 가족 단위의 수입이 \$3,800(1999 년 집계)이다. 청소년 자살은 미국 전체의 숫자에 비해 네 배가 된다고 한다. 많은 가정에 전기나 전화나 상수도 및 하수(下水)등의 시설이 없다고 한다. 난방장치도 나무를 때어 추위를 면하는 집도 많다고 한다. 이 구역의 평균 수명은 서반구(西半球)에서도 제일 짧은 그릇에 속한다고 하며, 한 집계에 의하면 남자는 약 47 세 (미국 평균 75 세), 여자는 50 여세 (미국 평균 80 세) 라고 한다. 유아 사망률은 미국 평균의 다섯 배나 된다고 한다. 이 보호구역 인구의 37 퍼센트가 당뇨병자들이라고 한다.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식량이라는 것이 백 밀가루, 백설탕, 지방질에 의한 열량(칼로리)음식인 것에 큰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하고 싶지 않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주민들의 알콜 중독에 관한 얘기이다. 이 보호구역내에서는 알콜 음료의 판매가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이 보호구역의 남쪽에 연접해 있는 네브래스카의 와일클레이(Whiteclay)라는 인구 불과 22 인의 지극히 작은 동리(洞里)의 주류 매상이 연간 \$3 백만 불이 된다고 하며, 그 대부분이 파인 릿쥐 주민

중 알콜 중독자들이 주 고객이라고 한다. 오죽했으면 이 지역의 인디언 자치 업무국(Bureau of Indian Affairs)에서는 알콜 판매를 금지했을까. 그러나 1976 년 빌립 메이(Philip May)가 몬태나와 와이오밍 주에 있는 일곱 개의 인디언 보호구역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알콜 판매를 허용하는 보호구역내에서는 간 경화로 인한 사망률이 28% 낮고,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47% 낮으며, 살인이 18% 낮고, 교통사고도 11% 낮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결국 알콜 판매를 금지한 결과는 연간 삼백만 불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보호구역 밖으로 유출되는 결과만 야기한 것이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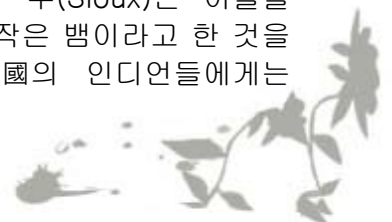
맨더슨 지역(Manderson-White Horse Creek)의 2000 년 인구조사에는 인구는 626 명, 109 세대(households), 97 개의 가족들(families)이 집계되어있다. 인구 밀도는 42.4/km²로 낮은 편이며, 인구의 구성은 98.72%가 미국 원주민, 1.76%는 히스패닉이나 라틴계, 1.12%가 백인이며, 0.16%가 두어 종족으로 구성된 것이다. 맨더슨은 슈넨(Shannon) 카운티에 위치하는데, 이 슈넨 카운티는 미국 전국을 통하여 제일 가난한 카운티로 알려진 곳이다. 사실 파인 릿쥐 인디언 보호구역은 슈넨 카운티와 잭슨 카운티로 구성되어있다. 잭슨 카운티도 슈넨 카운티보다 별로 낫을 것이 없는 상황이다.

맨더슨의 109 세대(households) 중 30.3%는 부부가 함께 사는 세대이고, 48.6%는 여자가 가장이며 남편은 없고, 10.1%는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공존하는 세대이며, 9.2%는 개인끼리 구성된 세대이고, 1.8%는 65 세 이상 혼자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한 가족의 평균 인명수는 5.99 명이라고 한다. 주택 사정이 나쁜 것도 사실이지만 이 점은 가족 문화의 잔재요 또 친척이 의지할 곳이 없어질 때 그 중 제일 가까운 친척이 데려다 살게 하는 양속(良俗)에 의한 것은 아닌가 한다. 연령 산포도를 보면, 18 세 미만이 52.9%, 18 세부터 24 세까지는 10.9%, 25 세부터 44 세까지는 22%, 45 세부터 64 세까지는 10.9%이며, 65 세 이상은 불과 3.4%이다. (물론 수명이 짧은 이유도 있겠지만, 인구의 반 이상이 18 세 미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의 빈곤의 설명도 될 듯싶고, 또 다르게 보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4.

그들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자. 오글랄라 쉘족(Oglala Sioux Tribe)은 大쑈國(the Great Sioux Nation)의 한 부족인데, 大쑈國의 영토는 원래 서쪽으로는 와이오밍 주의 빅혼산(Big Horn Mountain)에서 동으로는 위스컨신 주의 동부까지 미치고, 북으로는 캐나다에 이르렀으며, 남쪽으로는 캔사스 주의 리퍼블리칸 강(Republican River)에 이르는 방대한 나라였다. 그러던 것이 1868 년의 라라미 요새의 조약(Fort Laramie Treaty)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6 천만 에이커에 달하던 大쑈보호구역도 미국정부가 1876 년 이 조약을 또 범하여 그 중 칠백칠십만 에이커에 달하는 블랙 힐스(Black Hills)의 땅을 개척자들과 개인소유지로 처치한 것이다. 그리고 大쑈보호구역도 일곱의 자치구역제로 갈라놓았는데, 파인 릿쥐도 그 일곱 자치구역중의 하나로 된 것이다.

大쑈國은 그 점유 지역에 따라 라코타(Lakota), 나코타(Nakota), 다코타(Dakota)의 세 부족으로 구분되며 -- "코타"는 친구라는 뜻이라고 한다. -- 쉘(Sioux)는 이들을 통괄하여 지칭하는 이름으로 체로키(오지웨이) 인디언들이 이들을 작은 뱀이라고 한 것을 불어식 발음으로 적은 것이라고 한다. 블랙 힐스는 大쑈國의 인디언들에게는



성지(聖地)로 경외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그곳에 금이 매장되어있는 것을 탐내어 계속 쑈 인디언들에게서 그 땅을 매도(賣渡)받으려는 노력을 경주(傾注)하여왔다. 백인들의 이와 같은 일련의 인디언 통어(統御) 정책으로 인디언들과 (백인의) 연방정부는 서로 살갑지만은 않은 사이로 계속되어왔다. 1890년 연말 연방군의 넬슨 마일스 장군이 미 제 7 경기병 500인에 명하여 유령의 춤(Ghost Dance)이라는 것으로 백인들에게 대항하는 라코타인들을 네브래스카 주의 오마하로 호송하도록 하였다. 이 경기병단은 빅풋(Big Foot)이 이끄는 미니콘주 라코타 부족을 고슴도치 천(Porcupine Creek, 파인 릿쥐에서 30 마일 동쪽)에서 찾아서 그들을 철로가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하였다. 빅풋은 마침 폐렴을 앓고 있어서 아무런 반항 없이 그들의 지시대로 운딘 니 천(川)으로 갔고 거기서 야영(野營)을 하게 된 것이다. 다음날 아침 미 제 7 경기병단은 일단 인디언들이 휴대하고 있는 모든 무기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양쪽이 다 위구감(危懼感)을 느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미 제 7 경기병들은 네 대의 핫치키스 대포(두 바퀴가 장착된)를 갖고 있었는데 이 대포는 연발에 가까운 발사를 할 수 있었다. 갑자기 총성이 나고 무절제한 살육의 수라장이 연출되었다. 라코타 쪽은 120 명의 장정과 230 명의 아녀자들이 있었고 살육이 끝난 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디언 150 명이 실종, 153 명 사망, 50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제 7 경기병 500 명중 25 명의 사망과 39 명의 부상에 견주어 볼 때 넬슨 마일스 장군이 그의 편지에 쓴 것과 같이 이것은 틀림없는 일방적인 살육이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1890년 12월 29일에 있었던 일이지만 1973년 2월 27일에 시작된 71일 간의 인디언주권운동(American Indian Movement)자들과 연방정부군의 숨 막히는 대결이 이곳에서 재현되고 있었다는 것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적개심이 그 명맥을 연연히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웅변(雄辯)한 사태라고 할 것이다. 특별히 레나드 펠티어는 1975년 운딘 니에서 두 명의 FBI 기관원을 사살했다는 죄목으로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서 체포되었고 보호구역 밖으로 이송되었고 연방 정부의 재판을 받았고 판결을 감수해야 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영어(囹圄)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라코타인들 뿐만 아니라 인디언 일반에게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사례이다.

5.

이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면서 어디선가 라코타 쑈 주권국가(Sovereign Nation of Oglala Lakota Sioux)라는 표지판을 본 기억이 있다. 그러나 그 간판보다도 더 우리가 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키는 표지판이 있었다. "Why Die(?)"라는 표지판이었다. 이 표지판이 몇 마일만큼씩 도로변에 세워져 있었다. "왜 죽어?" 작은 다이아몬드 형(型)의 지극히도 초라하고 누렇게 빛깔바랜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된 표지판이었다. 크기도 보통 스타 사인의 반 정도나 될까. 나는 이 표지판을 목도(目睹)하면서 내면 크게 경악하였다. 왜 살지 않고 죽어? '살자!' 혹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등의 긍정적 표어를 다 버리고 이와 같이 비관적 표어를 내어 걸어야 했던 그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왜 그것이 이 지역의 제일 갈급(渴急)한 표어가 되어야 했을까. 아니, 세계 그 어느 곳에 또 이와 같은 참담(慘憺)한 표지판이 붙어 있을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호의호식(好衣好食)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자식들 앞에 부끄러웠다.

6. 파오와오 (Powwow)

파오와오란 인디언들의 공동의 잔치요 축제이다. 우리의 부여(夫餘)시대 때 영고(迎鼓)나 마한(馬韓) 시대의 무천(舞天)과 비슷한 집단 가무(歌舞)의 축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춤의 대열은 그 공터의 편편한 곳에 큰 원을 그리며 노래가 계속되는

한 돌고 또 돌았다. 간이 음식, 수공예품등을 파는 상점들 사이에 우리도 한 자리 배당 받아서 음식을 나누어 주게 되었다. 음식인즉 우리 선교단이 노인 아파트에 점심을 해드렸다고 해서 그 분들이 감사의 표시로 인디언 프라이 브렌(fry bread)같은 것에 꿀을 바른 것 한 상자와 그들이 먹는 국을 큰동이 가득 선사받아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였다. 저녁이었고 해가 지고 노을이 지는 시간이었지만 날이 하 더워 땀이 질질 흐르는 정도였다. 마침 우리 선교단이 냉동 물수건을 한 백여개는 될까 그 곳에 둘러앉아 기다리는 관객들에게 나누어 전하였다. 작은 선물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떤 이들은 감사히 받고, 어떤 이들은 아예 받기를 거부하였다. 내가 음식 나누어 주는 일을 맡고 있는 동안 한 패거리의 청소년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소리 높여 국이나 떡을 먹겠느냐고 하였다. 그 중 한 청년이 땅에 침을 뱉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더니 어깨를 으쓱 추켜들고 젊은이다운 패기를 극적으로 보여주며 지나갔다. (아, 저것이 희망이다!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우리 선교팀의 바디워십(body worship) 순서에 이어, 칼춤 등 두어 무용 순서가 있었고 나는 다시 객석 쪽에 와서 거기서 그 현란한 의상을 걸치고 춤을 추는 그들을 보고 있었다. 걸음을 막 배우는 꼬맹이 아이들로부터 연명한 사람들까지 다 함께 춤을 추는 것이다. 거기서 큰 북을 치는 인디언과 얘기도 나누었는데 그는 한국에서 군복무를 한 사람이었다.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고 하더니, 세상은 좁고도 좁은 것같이 느껴졌다. 갑자기 내 팔을 고는 사람이 있어 돌아다보았더니 춤추던 사람이 나도 이 번 노래가 시작되면 춤 대열에 끼라는 것이었다. 춤과 나와는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연관이 없었지만 무작정 그 사람을 따라 크게 원을 그리는 그 춤의 계열에 들어갔다. 2/4 박자의 급박한 (내 나이에는) 뽁뽁뽁뽁의 타고(打鼓) 소리에 맞추어 나는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왼쪽 발로 두 번 땅을 내리밟고, 다음에는 오른쪽 발로 두 번 땅을 밟는 춤인데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몸무게를 돌과 넷에서 왼 발에서 오른 발로 바꾸지 않으면, 한 돌 셋 넷의 단순한 율동도 그만 깨어지고 마는 것이었다. 한참을 (내 생각에는) 춘 후 나는 그냥 춤 대열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그 원의 사분지 일도 채 못 돈 춤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기하다는 표정 같은 것이 보였다. 내가 잘 추어서 그런 것은 아니리라. 그들의 것을 내가 해 본다는 데 대한 그들의 호감이었을 것이다. 신전도사님은 나에게 장수(우리 큰 아이)도 이들과 같이 춤을 춘 일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다 춤추기를 사양하는데 한 아들과 거의 반 십년이 지난 후, 그곳을 찾아온 그 아버지가 파오와오에 말려들어가 춤을 추었다는 것에 무슨 부전자전의 연대감 같은 것이 보이거나 한 듯, 그렇게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었다. 춤을 추는 사람들은 가히 선량해 보였다.

7.

맨더슨에서 우리는 썬트 애그네스 캐톨릭 교회에서 허락을 받고 그곳에서 나흘간의 하기 성경학교 등 어린이 사역을 하였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 곳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부님은 마침 출타 중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지기에게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렸더니 안 될 거라고 하며, 그 전 주 백인 개신교 선교단을 거절하였다는 말이었다. 불과 몇 시간 안에 지방 유지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허락하도록 탄원한 까닭에 곧 도착한 신부님도 우리와 만나 꽤히 허락하였던 것이다. 신전도사님이 부인이 해산하는 것도 버려두고 파인 릿쥐로 행하던 그 십 수 년의 순종이 이들에게는 큰 감동으로 우리 교회의 일을 손수 돕고자 협력한 결과였다. 맨더슨에는 이 썬트 애그네스 말고도 개신 교회 건물이 서너개 눈에 띄었으나 규모가 작았고, 폐허화 한 듯 문이 굳게 닫혀 있어 보였다. 백인들 선교의 실패한 흔적 같이 보였다.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

맨더슨! 이곳에는 그 흔해빠진 개스 스테이션 하나 없었다. 어디 그런 사치가 필요하랴! 청소년들은 우리가 운전하는 길 가로 삼삼오오 말을 각기 타고 먼지를 내며 지나고 있었다. 도로 동쪽에는 병풍 같은 암벽이 아름답게 이어져 있고 사이사이 푸른 솔이 자라고 있었다. 야영을 하며 이틀을 달려온 우리가 핑키스(Pinky's Store)에 도착하여 숨도 돌리지 못하였을 때, 그 뜨거운 땀별을 피하여 그늘에 늘어선 우리에게 거나하게 취한 인디언 한 분이 와서 도와 달라고 하였다. 그러기 전에 그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였다. 우리는 수인사를 하고 나는 점심 때 거스름돈을 받아 바지 주머니에 넣었던 것을 생각하고 그걸 꺼내어 전부 삼불을 그 손에 쥐어주었다. 턱도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 분의 앨코홀리즘을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 더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의 티셔츠는 아마 갈색이었을 것이다. 입에서 흘러내리는 타액이 반질반질한, 마치 도자기의 유약처럼 한 겹 입힌 그 밑에 선명한 그래픽 로고가 보였다. 주먹을 불끈 쥔 팔뚝 옆에 AIM (American Indian Movement)이라고 쓴 것이었다. 거나하게 술에 패배한 자의 꿈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한 날 꿈으로만 남아있어야 할 것인가. 그의 팔뚝과 얼굴에 부스럼 같은 것이 잔뜩 나 있었다. 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마 25:45)"라고 내게 보내신 것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는 떠나기 전 나와 일행에게 해엄을 치러 가겠느냐고 제안하였다. 나는 그 너그러운 제안을 감사하며 우리는 갈 수 없다고 하였다.

맨더슨! 물론 그 흔해빠진 개스 스테이션조차도 없는 우표딱지만한 곳이지만 오글랄라 라코타 대학(Oglala Lakota College)의 두 건물이 엄연히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가 이 주민들에게 선교해야 할 임무가 있음을 뚜렷이 지적하는 등대(燈臺)다. 하나님께서 벌써 이곳에 사역을 하시고 계신 증거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최근에 나는 인터넬에서 텍사스의 빛내리 교회가 미원주민 선교의 일환으로 파송한 안 맹호 목사가 이 부근의 랩핀 씨티(Rapid City, SD)에서 원주민 목사와 동역한다는 정보를 읽었다. 우리가 연전 러시아의 툴라(Tula)라는 도시에 갔을 때 툴라 장로교회가 이 흥래 선교사님을 통하여 온전히 빛내리 교회의 후원으로 설립된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고맙게도 우리 선교단을 유숙하도록 배려해 주신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저녁에 우리는 마이크 허매니호시스(Mike HerManyHorses)의 집으로 향하였다. 그의 집은 포장이 안 된 길로 먼지를 피우며 가는 곳이었다. 가뭄으로 마른 풀과 씨가 들은 마른 엉겅퀴, 그런 것으로 언덕은 밋밋하게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데크에서 멀리 구비치는 구릉(丘陵)을 관망(觀望)하며 나는 말할 수 없는 정막감(靜寞感)을 절감하고 있었다. 주님의 그 창조의 지고(至高)하신 아름다움 때문이었을까. 여름 저녁 늦게 지는 햇빛을 의지하여 완만히 경사진 언덕에 텐트를 치고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친 피곤한 몸을 누였다. 별뿔이 무수히 하늘의 유리를 깨뜨리는 것을 보며 오래고 오랜 옛날에 보았던 북두칠성의 바로 밑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 밤의 평화, 별로 가득 찬 하늘의 평화, 이 보호구역에 내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나의 유년과 현재가 한 덩어리로 녹아 붙는 이 순간. 나는 잠들기 전에 얼마간 기다려 보았다. 혹시 연전에 우리 선교단이 이곳에서 머무르던 철학의 밤중에 울음으로 호소하던 원혼(冤魂)들(운딘 니에서 미 제 7 경기병들에게 살육당한 이들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 올 것인가 아닌가 하며……

21. 유우머 1 번지

거지 사업

어느 교회 앞에 두 거지가 나란히 앉아서 동냥을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거지는 손에 묵탁을 들고 있었고, 한 명은 성경책을 들고 있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교인들은 모두 성경책을 든 거지에게만 돈을 주었고,
그 옆의 묵탁을 든 거지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않고 노려보면서 지나갔다.

잠시 후 성경을 들고있던 거지의 깡통은 돈으로 가득찼지만
묵탁을 든 거지는 한 푼도 얻지못했다.

잠시 후 그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보더니 손에 묵탁을 든 거지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충고를 해 주었다.

"이봐요, 여기는 교회앞이요, 당신이 묵탁을 들고 있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도 안 도와 줄거요" 하면서 지나갔다.

그러자 묵탁을 든 거지가 옆의 거지에게 말했다.
"이봐, 저 목사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거야?, 우리가 바본줄 알아?
이제 다 나왔나봐, 자리를 옮겨서 저쪽 절 앞으로 가자구"

1 달러를 쥐어

한 변호사(황변호사가 아니고 “한” 변호사^^)가 죽어 저승에서 천국행이나
지옥행이나를 결정하는 심사를 받고 있었다.

베드로는 그의 죄과를 장황하게 나열했다.

첫째, 환경 오염 관련 소송에서 유죄인 줄 알면서도 대기업을 변호한 죄.
둘째, 높은 수임료 때문에 살인자임을 알면서도 변호한 죄.
셋째, 많은 가난한 의뢰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죄.
넷째, 검사 시절 무고한 사람을 기소해 희생양을 만든 죄.
다섯째... 여섯째...

계속 나열되는 죄목에 짜증난 그 “한” 변호사가 항의했다.

“나도 생전에 많은 선행과 자비를 베풀었소.”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그래 알고 있다. 넌 언젠가 거지에게 50 센트를
적절한 적이 있고 또 구두닭이 소년에게 50 센트를
팁으로 주었다. 맞느냐?”

"그럼요." 변호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베드로가 옆에 있는 천사에게 명령했다.
“저놈에게 1 달러를 쥐여 불지옥으로 보내라!”

너희 집안 문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다고 말하자마자 한 학생이 말했다.

"우리 아빠가 그러시던데요,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고요."

선생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러니? 너희 집안 문제는 주일학교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자꾸나."

노인의 고해성사

한 노인이 성당의 고해성사실에 들어갔다.

"신부님, 저는 올해 75 세인데 50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요.
그동안 다른 여자에게 눈길 한번 안쬈는데, 두 달전에
18 살난 아가씨를 만나 외도를 하였답니다."

"두 달전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그동안 성당에 한번도
안나오셨습니까?"

"성당이에요? 여긴 오늘 평생 처음 오는거예요. 전 불교신자거든요."

"그럼 지금 왜 저에게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동네 사람들에게 다 자랑했는데 신부님에게만 안했거든요."